우리나라의 傳統會計에 관한 理論的 研究

- 宗中會計를 중심으로

이우목

〈 요약 〉

본 연구는 開城商人의 사개송도치부법과 같은 營利團體의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非營利團體인 우리고유의 契 및 宗中文化 등에서 自生的으로 발달되어온 會計의 特性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宗中財産의 會計處理와 報告 등에 대해서 再 照明하며, 아울러 宗中과 관련된 會計(이하, '宗中會計'라고 한다)의 成立與否와 이를 위한 諸 方法 등에 대해서도 考察하였다. 研究結果, 營利目的으로 작성된 사개송도치부법은 i.發生主義 會計原則이 部分的으로 반영된 複式簿記로서, 그 生成時期는 西洋簿記의 傳來以前이며, 또한, 현병주(1916)의 著述以前이기 때문에 사개송도치부법이 最小限 19세기 중반 以前에 우리나라에 존재(高麗時代 起源說이 주류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非營利組織인 門中 契의 帳簿인 『용하기』는, 契의 設立, 運營, 會計, 監査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生成된 時期는 最小限 18세기중반으로 朝鮮社會의 近代的 合理主義 精神을 背景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宗中會計는 오랫동안 慣行的으로 이루어져 온 單式簿記, 現金主義會計라는 過去의 慣習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 그 결과, 宗中の 財産과 관련한 橫領, 詐欺事件이 종종 발생하는 問題點들을 露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III장에서는 宗中會計를 獨立的인 非營利會計의 한 分野로 파악하여, 宗中會計의 問題點을 파악하고 代案을 제시하기 위하여 餘他的 非營利會計와 比較分析하였다. 그 결과, 주요 固定資産과 資本에 대한 會計認識이 漏落되었고, 또한 財務報告를 위한 獨立的인 會計基準이나 規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內部會計統制 상의 상당한 脆弱點을 露呈하고 있었다. 그러나 宗中會計가 會計理論 構造상의 改善과 內部會計統制 등이 잘 補完된다면, 하나의 獨立的인 非營利機關의 會計領域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固有의 傳統文化와 制度 속에서 傳統的인 會計가 어떻게 生成·發展되어 왔는지를 考察(整理 및 要約)함으로써, 향후 會計史的으로 뿐만 아니라 會計와 관련한 經濟的·社會的·文化史的 傳統研究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 序 論

제 1 절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會計의 歷史는 대체로 人間文明의 역사이다”라는 Woolf(1912)의 언급과 같이 회계는 人間文明의 발달사와 함께 進化하여 왔다. 즉, 人間の 經濟활동에서 요구되는 기록·계산에 관한 諸방법과 기준은 人間文明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여 왔다.¹⁾ 따라서 이러한 기록·계산과 관련한 회계제도는 그 시대의 생활상과

1) 홍정호·장영란. 『회계사상 및 제도사』, 두남, 2013, p.19.

제도 등을 반영하는 거울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회계가 거래내역을 관련된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환경을 投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고대사회의 생활상들이 그 시대의 장부나 예산안 등의 각종 회계기록에서 類推되기 때문이다.²⁾ 따라서 회계와 관련된 장부기록에는 그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와 경제, 문화에 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양에서는 複式簿記를 중심으로 성립한 회계학을 合理主義 문화의 원천으로써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주의 價値體系의 중심에 있는 회계(학)는 그 시대의 모든 경제적, 문화적 實相 등을 반영하고 있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전통문화, 제도, 관습 등에서도 傳統會計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推論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統一新羅時代 이래 상업이 크게 隆盛하였으며, 또한,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海商貿易이 매우 盛行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대내·외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을 기록·관리 및 보고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등이 어떤 형식으로서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매우 활발하게 商去來가 형성되었던 開城지역상인들을 중심으로, 四介松都置簿法(置簿; 金錢·物品의 출납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함)이라는 우리고유의 簿記制度가 존재하였다는 學說이 있다. 즉, 이들 開城商人을 중심으로 한, 開城簿記(혹은 松都簿記)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3가지 假說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가설이외에도 중국으로부터의 傳來說 등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학설도 확실한 文獻研究나 考證 등에 의해서 定說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연구에서는 개성부기가 서양의 복식부기(1494년)보다도 200여년이나 먼저 創製(考案)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윤근호, 1984).⁴⁾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문헌연구나 고증을 통해서, 사개송도치부법의 根源을 밝혀내는 것이 향후 會計史的 研究와 관련해서도 더욱 요구된다. 전술한 회계와 그 시대의 생활상간의 兩面性을 감안하여, 우리의 傳統會計研究도 현존하는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傳統文化와 결부되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전술한 개성상인들의 사개송도치부법과 같은 營利團體의 회계방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본격적인 우리의 전통회계에 관한 연구도 19세기 開港前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도 우리 고유의 전통회계의 實態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의 이유에서 나타나듯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전통회계연구가 營利會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朝鮮時代의 근간이 되는 儒敎文化와 이에 기초한 共同體的인 慣習(즉, 契, 宗中, 寺刹, 書院 등)과 관련된 會計文化, 즉 非營利團體의 회계를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연구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는 회계의 양면성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19세기의 開港前後의 자료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 이전

2) 이정호. 『회계사상사』, 경문사, 1985, p.7.

3) 전성호. 『조선시대 호남의 회계문화』, 다할 미디어, 2007, p.7.

4) 윤근호. 『한국회계사연구』, 한국연구총서 제51집, 한국연구원, 1984.

의 전통회계에 대한 부분이 漏落되어 있다는 점이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開城商人의 사개송도치부법과 같은 營利團體의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非營利團體인 우리고유의 契 및 宗中文化 등에서 자생적으로 발달되어온 회계학적 특성에 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와 제도 속에서 전통적인 회계가 어떻게 생성·발전되어 왔는지를 회계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향후, 회계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사적과 관련된 회계학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宗中과 관련된 傳統的인 會計研究에 主眼點을 두어, 宗中財産의 회계처리와 報告시스템 등에 대해서 오늘날의 회계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아울러 중증과 관련된 회계(이하, ‘宗中會計’라고 한다)의 성립여부와 이를 위한 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목적은 傳統會計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근간이 되는 儒敎文化와 이에 기초한 共同體的인 團體(계, 중증 등)등이 어떠한 方式으로 어떠한 內容을 (회계)記錄하여, 運營되어 왔는지를, 이들 전통조직과 관련한 문헌 및 고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있다. 이는 회계가 基本的으로 合理主義的인 思考에 基礎하고 있으며, 또한, 그 시대의 生活相을 反映하고 있기 때문에, 合理的 精神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문화, 제도 등과도 一脈相通하여 이들 간의 關係分析을 통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현존하는 文獻과 關聯研究 등에 기초하여, 전술한 先行研究의 未備點을 보완하여 우리의 전통회계를 보다 深層的으로 분석하여, 이를 體系化하는 데에 있다.

제 2 절 研究의 方法과 範圍

會計 史學者인 A. C. Littleton(1933)에 의하면⁶⁾, 中世時代에 이탈리아에서 生成된 複式簿記의 前提條件으로서, 최소한 다음의 7가지 充足條件을 제시하였다. 이는 表示方法(art of writing), 算術(arithmetic), 私有財産權(private property), 貨幣(money), 信用(credit), 商業(commerce), 資本(capital)등이다.⁷⁾ 만약, 위의 7가지 조건이 복식부기生成의 先行條件이라면, 傳統會計의 根源研究도 위의 조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한다. 즉, 開城商人들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 사개송도치부법과 우리고유의 傳統文化인 조선시대의 儒敎의 文化에 기초한 共同體的인 契의 文化, 宗中(門中), 書院 등의 帳簿記錄에 전술한 條件들이 i. 어떻게 內在되었는지?, 또한, ii. 어떻게 接木되어 오늘날의 복식부기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가 체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한편, 본 研究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술한 개성상인의 사개송도치부법과 같은 傳統的인 營利組織을 중심으로 한 傳統會計(營利會計)와 非營利

5) 정기숙 외 2인. “조선시대 비영리조직의 회계실태 및 윤리규범연구(1668-1900)”,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 발표회 논문집, 2004, p.2.

6) A.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90, New York: American Institute Publishing Co., Inc., 1933, pp.12-21.

7) 홍정화·장영란. 전개서, pp.404-405

組織인 우리나라 고유의 契文化 등에서 자생적으로 진화한 宗中(門中)중심의 회계(非營利會計)로 구분하여 事例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별도의 非營利組織으로서의 宗中會計의 成立 可能性과 이를 위한 改善方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i. 박영진 家의 사개송도치부법과 ii. 전남 영암군 장암마을의 南平 文氏의 門中 契에서 작성한 『용하기』장부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傳統會計의 生成과 發展過程 및 會計處理方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iii. 이외에도, 中宗(門中)이 중심이 된 宗中會計의 成立 可能性과 이를 위한 改善方向 등에 관하여 각종 非營利團體의 會計規範이나 指針書 등을 참조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는 다음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써,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및 研究의 方法和 範圍가 기술되어 있다. 제2장은 理論的 背景-1로서, 營利組織의 代表的인 事例研究로서 사개송도치부법과 非營利組織의 代表的인 事例研究인 전남 영암군의 南平 文氏의 門中 契에서 작성한 『용하기』에 관한 내용이다. 이처럼, 제2장은 대표적인 傳統會計와 관련한 事例研究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이들 조직의 生成背景과 資金等 財產管理와 處分等에 대하여 會計學的 觀點에서 概觀한다. 제3장은 理論的 背景-2로서, 宗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宗中의 財產管理와 處分等에 대하여 오늘날의 會計學的 觀點에서 再照明한다. 제4장은 결론으로써, 전술한 내용의 整理 및 要約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논의를 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점은 資料 및 先行研究의 不足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入手 可能한 資料와 先行研究를 根據로 한 事例分析과 關聯 非營利組織의 會計規範이나 指針書等에 依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事例分析이 부족한 자료로 인하여 一般化된 結論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는 限界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未開拓의 分野를 探索하는 效用價値는 있다고 본다.

II. 理論的 背景 - 1

제 1 절 우리나라 傳統會計에 관한 序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요구되는 記錄·計算에 관한 諸方法和 基準은 인간문명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進化하여 왔다. 우리의 경우도, 統一新羅時代 이래 商業과 海商貿易의 發達이, 어떤 형식이든 會計記錄과 基準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들도 현재 보고되고 있다. 특히, 高句麗이후 朝鮮에 걸친 1천여 년 동안에 商工業이 繁昌하였던 開城(松都; 高麗時代의 都邑地)地域의 商人들 사이에는, 사개송도치부법이라고 膾炙되는 簿記法(置簿法)이 20세기초반까지 상인들 사이에 간간히 傳來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드물게 進行되어 왔다.⁸⁾ 이와 같이, 과거의 文獻과 記錄을 중심으로 한 會計史 研究는 회계학자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提高해주고 있다. 이는 이들 문제가 안고 있는 複雜性이

8) 홍정화·장영란. 전게서, p.401.

나 持續性을 회계학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評價할 수 있도록 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彌縫策을 受容하는 誤謬를 방지해주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본 연구인 우리의 傳統會計(契 및 宗中會計 等)에 관한 연구도 關聯文獻을 중심으로 하여 把握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傳統會計에 관한 연구는 잃어버린 옛 傳統文化중의 한 부분(會計記錄과 관련한 그 시대의 生活相 等)을 되살려 우리역사의 참 모습을 概觀하고, 이를 오늘날의 우리모습과 비교하여 새로운 발전의 繼起를 찾아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¹⁰⁾

제 2 절 사개송도치부법의 研究¹¹⁾

1. 사개송도치부법의 生成過程과 向後 課題

開城은 高麗時代(A.C. 918~1392)의 首都(都邑地)로서 松都라고도 불리었다. 따라서 이곳 상인들이 사용한 四介松都治簿法은 地名이름을 본떠서, 松都四介治簿法, 松都簿記法, 開城簿記法 등의 다양한 용어로 膾炙되었다. 여기서 治簿法은 오늘날의 簿記法을 의미하며, 置簿法, 治富法, 致簿法, 致富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윤근호, 1970). 開城簿記의 起源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①高麗時代 開城商人들에 의해서 獨創적으로 考案되었다는 高麗時代 起源說과 ②朝鮮時代 起源說 및 ③基督教 傳來說 등을 비롯하여 몇몇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이정호외 4인, 2002).

첫째, 高麗時代 起源說은 현재 학계의 多數說로서,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생활하고 있던 王侯, 貴族, 僧侶, 豪商 등의 지배적 상류계층에서 성행하였던 상업과 高利貸 金活動을 기반으로 創案된 것이라는 주장이다(田村流水, 1917; 須藤文吉, 1917; 善生永助, 1924; 윤근호, 1984). 이의 根據로써, 치부법의 장부내용을 분석하면 그 내용이 高麗時代의 社會經濟인 生活相을 反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회계가 그 시대의 生活相을 반영하는 거울(Woolf, 1912)이기 때문이다.¹²⁾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며 또한 複式簿記로서 인정된다면, 서양의 複式簿記(Pacioli, 1494)보다도 生成時期가 앞서기 때문에 매우 劃期的인 일이다. 특히, 윤근호(1984)는 이에 대하여, “사개송도치부법이 이론적으로는 東洋思想에 基礎하며, 그 根本原理는 서양의 複式簿記와 매우 일치하고 있다. 또한, 實務的으로도 서양의 複式簿記보다도 우수하며,

9) J. R. Edwards & 최종학. 『회계사를 왜 연구하여야 하는가?』, A History of Finance Accounting, 1989, pp.5-15.

10) 허성관. 韓國傳統會計研究의 成果와 課題. 회계저널 제23권(1), 2014, pp.61-89.

11) 以後의 內容은 ①현병주 지음, 이원로 번역·해설. 『四介松都置簿法 正解』, 다산북스, 2011, ②홍정호·장영란. 『會計思想 및 制度史』, 두남, 2013, ③이정호. 『會計思想史』, 경문사, 1985, ④기타 다수의 논문과 저서(박종문, 1956; 윤근호, 1970, 1984; 권순백, 1986; 정기숙 외 2인, 2004; 이정호 외 4인, 2002; 전성호, 2007 허성관, 2014)등의 內容을 拔萃·整理한 것임.

12) 이를 윤근호(1970)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簿記記述인 자료와 더불어 그 生成·發展의 社會경제적 基盤을 분석·고려함으로써, 사개송도치부법이 서양의 複式簿記보다 훨씬 앞서고, 복식부기의 소원(溯源; 사물의 근원을 따져 밝히는 것을 의미함)은 동양의 한국에서 中世高麗時代라는 確信”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한다.

歴史的 生成時期도 서양의 複式簿記보다 약 200년 이전이나 앞섰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이들 簿記記錄에 관한 문헌이나 역사적인 자료가 現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限界이다. 두 번째, 朝鮮時代 起源說은 朝鮮時代に 開城簿記가 開城商人에 의하여 獨창적으로 創製되었다는 주장이다(Hiral, 1926; 박문중, 1956). 이의 근거는, 고려시대 貨幣制度의 未備와 都邑地인 開城이 資本主義 經濟基盤이 脆弱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박중문(1956)은 “고려시대의 貨幣制度는 매우 劣惡하였으며, 특히 개성은 産業的 背景이 全無한 도시로서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성립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 오히려, 高麗王朝의 後孫들이 조선시대의 官職을 回避하고 상업에 專念한 까닭에, 개성의 상업이 隆盛하여 여기에 符合하는 무기법이 生成되었다” 는 朝鮮時代 起源說을 주장한다. 셋째, 基督教 起源說은 19세기의 후반에, 基督教 宣敎活動의 시작과 함께 서양의 複式簿記法이 이들 宣敎師들에 의하여 傳來되었다고 보는 見解이다. 이외에도, 中國 靑나라시대의 光緒帝때 中國에서 傳來되었다는 說도 提起된다. 하지만, 中國傳來說은 사개송도치부법의 회계기록과는 時代的 背景(연도)이 一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中國의 複式簿記 導入時期가 靑나라의 마지막 皇帝인 光緒帝시대(在位: 1850~1961)이기 때문이다(박중문, 1956). 어쨌든, 위의 주장들 모두는 文獻研究나 史料에 의해서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것은 없다. 따라서 向後 사개송도치부법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 2가지 觀點에서 연구가 進行되어야 한다. 첫째는 사개송도치부법의 起源과 관련된 考證作業이다. 두 번째는, 과연 사개송도치부법이 서양의 複式簿記의 要件을 充足하고 있느냐? 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향후에 만약, 사개송도치부법이 考證研究 등을 통하여 高麗時代의 複式簿記라는 것이 立證된다면, 이는 세계 最古, 最初의 木版 印刷術의 發見(다라니경 목판본 발견)이상의 劃期的인 發掘이기 때문이다.

2. 사개송도치부법의 起源에 관한 文獻研究

사개송도치부법의 起源에 관한 最初의 연구는 記帳方法 등을 알기 쉽게 공개한 현병주(편집, 1916)의 『實用自修 四介松都治簿法』이다. 현병주(1916)은 四介置簿法(四介置簿는 본래, ‘사개다리치부’의 준말이다)에 精通하였던 개성사람들(김경식과 배준녀)의 校閱을 받아 『사개송도치부법』에 관한 記錄方法을 잘 정리하였다(홍정화·장영란, 2014). 따라서 현병주(1916)의 著述은 사개송도치부법의 理論과 實踐을 最初로 公開한 書籍으로서, 傳統會計研究의 嚆矢이고, 以後 研究의 出發點을 提供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현병주이후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현병주의 著述을 參考한 것으로 보이며, 帳簿의 例示와 같은 文字와 숫자를 바꾸었을 뿐 그대로 引用하였으나, 그 引用의 根據을 밝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홍정화·장영란, 2014). 그러나 현병주이후의 사개송도치부법의 起源에 관한 初期 研究들은 대체적으로 日帝時代に 日本學者들에 의해서 主導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부는 다소 歪曲되어 오늘날까지 보고되고 있다.¹³⁾ 사개송도치부법의 起源에 관한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高麗時代

起源說과 朝鮮時代 起源說로 兩分되고 있다. 田村流水(1917)은 최초로 “고려시대에 복식부기가 있었다.” 라는 글을 게재(동경경제잡지, 제76권(1911))하여 사개송도치부법의 高麗時代 起源說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사개송도치부법이 複式簿記임을 最初로 外國에 紹介한 문헌은 호주 회계사 협회지인 「연방회계사; The Federal Accountant, 1918」의 편집후기 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이미 12세기 高麗時代に 複式簿記가 存在하였고, 그 起源이 西洋의 複式簿記보다도 200년이나 먼저 創製되었다.” 라고 西洋世界에 公表으나, 어떠한 實證的 根據로 이렇게 記述하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윤근호, 1984). 이와 對照的으로 朝鮮時代 起源說을 주장한 Hiral(1926)는 복식부기인 사개송도치부법이 Pacioli 이후의 朝鮮時代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起源도 500년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推定함으로써 朝鮮時代 起源說을 뒷받침하고 있다. 大森研助(1922)은 “開城簿記의 起源에 대해서”에서도 사개송도치부법의 高麗時代 起源說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大森研助(1922)의 論證自體가 客觀的인 資料나 實證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主觀的인 表現(推定)으로 記述하고 있어 說得力이 없다. 특히, 大森研助(1922)의 주장이 당시 日本 帝國主義 政策과 符合하였고, 京都帝國大學의 教授라는 權威때문에 정부수립以後 상당기간까지도 無批判的으로 受容된 까닭에, 向後 사개송도치부법의 연구에 걸림돌이 되었다(허성관, 2014). 윤근호(1984)는 大森研助(1922)의 주장을 考證과 文獻研究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反論을 提起하였다.¹⁴⁾ 윤근호(1984)는 實證結果, “高麗時代 首都開城을 中心으로, 貨幣, 信用, 國際貿易 등 經濟的인 要因뿐만 아니라, 文字 사용, 印刷術의 發達, 數學知識의 普及정도 등 社會的인 與件도 複式簿記를 必要로 할 만큼 충분히 成熟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朝鮮時代 起源說을 부인하였다. 즉, 會計는 그 時代의 社會·經濟的 實相을 反映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複式簿記가 生成될 수는 없고, 社會·經濟的인 필요에 따라 進化할 수밖에 없다는 論理이다. 오히려, 사개송도치부법의 發生時期(高麗의 全盛期인 대략 1010~1274)는 서양의 複式簿記의 生成時期(13~14세기의 이탈리아 상업도시)보다도 앞서며, 오히려 帳簿體系를 考慮할 경우 複式簿記의 元型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5세기까지의 동방문화의 서점(西漸)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사개송도치부법의 西進說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윤근호(1984)의 考證에 의한 사개송도치부법의 高麗時代 起源說은 信賴할만하나, 아쉽게도 高麗時代의 실제會計帳簿가 現存하지 않아 確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최소한 18세기 중반의 실제장부는 현재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18세기 중반以前에 獨創的으로 起源한 複式簿記라고 推論할 수 있다. 특히, 現存하는 장부의 記帳技術과 用語 등이 Pacioli(1494)와 比較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獨創的이다(이원로, 2011). 또한, 복식부기의 基本원리도 훼손하지 않

13) 허성관. 한국전통회계연구의 성과와 과제. 회계저널 제23권(1), 2014, pp.61-89.

14) 윤근호(1984), pp.170-244. 참조: 즉, 회계는 그 시대의 社會·經濟的 實相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社會·經濟的인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生成 發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社會·經濟的인 환경으로서, Littleton(1933)은 私有財産制度의 確立, 貨幣制度和 信用經濟의 發展, 大規模 商去來와 資本의 出現 및 算術知識의 確立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근호(1984)는 고려시대에 사개송도치부법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허성관, 2014).

면서 多樣한 計定科目을 創案하여 活用하고 決算한 점과 이들 用語(吏讀; 이두)의 使用起源도 7世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허홍식, 2011).¹⁵⁾ 結論的으로, 사개송도치부법의 生成時期는 최소한 18세기 중반以前이며, 우리나라에서 獨創的으로 起源한 複式簿記라고 推論할 수 있다.

3. 현병주(1916)의 사개송도치부법에 관한 研究

가. 사개(四介)의 意味

사개송도치부법의 四介의 定議에 대해서는, “四介라 四介” 할 정도로 그 명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다.¹⁶⁾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즉, 4個 種類의 帳簿, 4個 種類의 記帳用語, 4個 種類의 計定科目을 기초로 하여 四介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4個中의 捧次=資産, 給次=負債, 消費=費用, 利益=收益이다. 여기서, 捧次는 받을 돈을, 給次는 줄 돈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병주의 四介란 捧次秩, 給次秩, 利益秩, 消費秩의 4個로서, 그의 저서(사개송도치부법 정해, 1916) 제21장 會計冊에 잘 分立되어 있다(捧給損益의 4掛表示 決算方法). 이로 인하여, 捧次가 1개, 給次가 1개, 利益이 1개, 損害가 1개 모두 합하여 4개라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거래는 결국 帳簿上 財務狀態表 계정인 捧次秩(資産計定)과 給次秩(負債와 資本計定)으로, 다시 損益計算書計定으로서 利益秩(收益計定)과 消費秩(費用計定)으로 分類된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四介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사개치부법은 사개문서(四介文書), 사계문서(四計文書) 또는 사개다리문서라고 하여, 4개의 장부와 관련이 있고 또한 4개의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四介란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4개의 장부를 外上帳冊, 他給帳冊, 日記帳, 銘心錄(補助簿)으로 보기도 하며, 또는 草日記, 中日記, 外上帳冊, 他給帳冊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草日記, 外上帳冊, 他給帳冊, 會計冊으로 보기도 한다. 田村流水는 草日記, 中日記, 外上帳冊, 他給帳冊을 4計라고 하였다. 둘째, 大森研助는 貸借關係를 나타내는 記帳用語로서, 入, 還給, 捧次, 還上의 4가지 기호를 사용하므로 그것을 四計라고 칭한다고 하였다. 즉, 大森研助는 서양부기에서 사용하는 貸邊과 借邊의 用語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의 4가지 기호를 발견하고 그것을 四計라고 생각한 것 같다. 大森研助는 사개치부법의 帳簿上, 外面上, 表面上에 나타나는 것만을 관찰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大森研助는 그런 4개의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공연히 번잡해지고, 記帳者에게 매우 곤란을 느끼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批判이 있어 支持를 받지 못한다는 指摘을 받는다.

나. 帳簿體系에 관한 연구

15) 우리 문헌에 나타나는 簿記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借邊과 貸邊을 區分하는 차중(此中)이(以)표시이다. 7세기 新羅村落文書에 이 표시가 보이고 있다(허성관, 2011).

16) 현병주 지음, 이원로 번역·해설. 사개송도치부법 정해, 다산 북스, 2011, p.41.

17) 윤근호, 전계서 pp.43-44.

18) 홍정호·장영란. 『會計思想 및 制度史』, 두남, 2013, pp.417-418.

먼저, 사개송도치부법의 丈夫體系는 基本的으로 日記帳(分介帳)에서 帳冊(元帳)으로 그리고 最終的으로 會計冊(貸借損益殘額表)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段階別 各 帳簿에 대한 記錄要領은 아래와 같다.

- 日記帳에는 入去方式으로 分介하여 記錄한다.
- 日記帳 기록을 각 人名別 帳冊의 入去¹⁹⁾란에 거듭하여 기록한다.
- 각 帳冊의 잔액으로 會計冊을 작성하며, 會計冊은 俸給損益 4개부로 구성된다.
- 받을 돈은 俸次, 줄 돈은 給次, 損失은 損害, 利益은 利益란에 重紀한다.
- 貸借對照表는 會計冊의 俸次/給次表로 같음한다.
- 損益計算書는 會計冊의 損害秩과 利益秩을 비교하여 작성한다.
- 決算帳에서 純利益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증하여 決算을 확정한다.
- 決算이 확정되면, 次期 分介帳에 磨勘 및 移越分介를 실시한다.
- 磨勘 및 移越分介는 損益計定과 在庫資産計定에 한하여 실시한다.

上記帳簿 中에서, 日記帳은 主要簿에 속하며, 日記인 동시에 오늘날의 分介帳과 現金出納帳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그 외의 主要簿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사개송도치부법의 分介帳은 現행 簿記의 分介帳이 아니라, 資産 및 負債元帳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現행의 分介帳은 상기의 日記帳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元帳인 帳冊을 俸次帳과 給次帳으로 나눈 것이고, 이를 外上帳冊과 他給帳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決算表의 掌記를 그 밑에 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서양부기에서는 主要簿가 아니지만, 이런 補助簿에 속하는 決算表가 원장(帳冊)에서 작성되고, 帳記는 그의 附屬明細書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通帳을 “外上物品 借入을 위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外上債券과 債務를 기록한 補助簿일 것이고, 저금통장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主要簿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⁰⁾ 물론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의 西洋簿記에서는 모두 補助簿에 속한다. 補助簿 中에서, 現金出納帳은 日記帳이 現金出納帳의 역할을 함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物品去來帳은 오늘날의 商品在庫帳으로서 物品 入出庫 記錄簿, 즉 商品受拂簿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부는 이 시대의 유럽과 미국 등의 簿記書籍에는 없는 선진적인 帳簿이다.²¹⁾ 그리고 委託物處理場과 어험수지장(魚驗收支帳)은 모두 委託物과 어음에 관한 補助記入帳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會計帳으로서, 이를 “一部分의 去來를 決算한 者(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現병주의 저서 제23장[後錄復簿(磨勘 및 期初 再修正 分介)의 例]에서 장기(掌記)를 “일부의 거래를 決算한 것이고 補助簿에 속한 會計帳에 소속된 帳簿”라고 한 것을 보면, 장기(掌記)를 이 會計帳의 附屬明細書로 생각하고 會計帳은 會

19) 예를 들어, 현금입금은 入, 현금출금은 去란에 기입한다.

20) 홍정호·장영란. 전계서 pp.418-420.

21) 현병주. 전계서 p. 43.

計冊을 지칭하여, 이 會計冊도 補助簿의 일종에 속한 것이라 하였다. 즉, 위 분류에서, 제17장의 會計冊(帳)은 損益計算帳과 같이 오늘날의 決算 財務諸表에 해당하는 것이다. 損益計算帳은 전부 交換貸借를 試算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決算帳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개송도치부법이 主要簿와 補助簿로 나누어져 있으나, 主要簿의 日記帳(分介帳)과 帳冊(元帳) 및 兩者의 關係가 明確하게 分類되지 않고 있다.²²⁾

4. 사개송도치부법의 複式簿記에 관한 研究

우리나라 固有의 最初의 傳統會計書는 현병주(1916)의 『사개송도치부법』이며, 사개송도치부법이 複式簿記의 根據가 되는 主要한 端初는 記帳原理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현병주(1916)이후 사개송도치부법의 記帳原理에 관한 代表的인 研究로는 김진영(1972), 윤근호(1984), 김기호(1986), 이원로(2011), 홍정호·장영란(2014) 등이 있다. 현병주(1916)에서 指摘한 사개송도치부법의 獨尊性和 獨創性은 김진영(1972)과 김기호(1986)의 연구에서도 확인이 된다.²³⁾ 특히, 記帳原理와 相關한 松都簿記(즉, 開城簿記, 사개송도치부법)의 獨創性을 살펴보면, 松都簿記는 入邊과 去邊, 즉 貸邊과 借邊의 別行으로 分介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分介는 지금도 그 어느 나라의 手記帳簿에서 볼 수 없는 松都簿記만의 獨創的이고 完全한 記帳方式이다. 즉, 分介를 別行으로 하는 것은 현재도 電算會計에서만 實施할 뿐, 手記帳簿에서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松都簿記가 入去別行으로 分介한 것은 現行簿記의 電算會計와 一致하는 것인 바, 이는 松都簿記가 처음부터 完全한 陰陽 디지털 簿記方式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는 世界最初이고 지금도 手記帳簿에서는 그 由來가 없는 獨創·獨尊的인 것이다(이원로, 2014).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治簿法의 경우, 基本的인 分介原理에서는 대체로 同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資産, 負債 및 資本의 分類方式에는 다소 差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현병주(1916)와 김진영(1972)은 資産計定의 元帳을 外上帳冊으로, 김기호(1986)는 捧次帳冊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負債 및 資本의 경우에도 현병주(1916)와 김진영(1972)은 이를 他給帳冊으로, 김기호(1986)는 給次帳冊으로 分類·表示하였다. 이처럼, 帳簿分類나 用語選擇에 있어서 會計主體別로 差異가 있어 松都簿記의 多樣性을 읽을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松都簿記는 西洋의 簿記(記帳)原理보다도 오히려 더 獨創性和 獨尊性이 있으며, 會計主體 別로도 多樣하게 活用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i. 西洋簿記의 生成以前에 사개송도치부법의 實際帳簿나 會計記錄이 特定 會計年度에 存在하여, ii. 이들 帳簿의 記帳原理나 會計處理方式이 複式簿記로 立證된다면, 사개송도치부법의 우리나라 複式簿記의 起源說은 支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의 研究에서는 i..ii.에 基礎하여, 複式簿記의 起源에 관한 研究를 進行한다.

22) 홍정호·장영란. 전거서 p.420.

23) 현병주(1916), 김진영(1972), 김기호(1986)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杉本德榮(1998)참조.

5. 사개송도치부법의 起源에 관한 研究

전술한 바와 같이, 複式簿記의 起源과 관련된 研究는 대체적으로 2가지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첫째는 사개송도치부법의 記帳原理나 會計處理方式 등이 複式簿記 與否에 관한 研究이다. 두 번째는 만약, 사개송도치부법이 複式簿記라고 假定을 할 경우, 西洋 複式簿記의 分介帳과 元帳에 해당하는 日記冊이나 帳冊이 西洋의 複式簿記보다도 먼저 記錄(保管)으로 考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윤근호, 1970). 이러한 두 가지 先行條件이 考證을 통해서 充足되어야만, 우리나라의 複式簿記 起源說은 支持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첫 번째 연구는 사개송도치부법의 記帳原理나 會計處理方法 등이 西洋의 複式簿記의 原理에 符合하느냐? 에 관한 것이다. 이들 相關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병주(1916)의 사개송도치부법의 내용은 漢字와 吏讀,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統一案 以前의 朝鮮時代 表記法으로 기록되어 있어 解讀하기가 어려우나, 이원로(2011)는 이를 現代的 視覺에서 이해하기 쉽게 翻譯, 解說하였다. 특히, 이원로(2011)는 현병주(1916)가 複式簿記가 아니라는 조익순(1999)의 評價에 대해서도 條目條目 그의 誤謬를 指摘하였다(허성관, 2014). 이후, 조익순과 정석우(2007)은 사개송도치부의 帳簿 中에서 長期間(1786-1909)에 걸친 外上帳冊과 他給帳冊을 分析한 결과, 이들 元帳의 記入內容이 複式簿記의 初期形態임을 確認하였다. 연도로 보아서 國內의 所藏된 帳簿로서는, 1756年 사개송도치부 帳簿가 가장 年度가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衫本德榮(1998)도 ‘개성부기법의 논리(開城簿記法의 論理)’에서, 사개송도치부법이 複式簿記라고 증명하였다. 즉, 衫本德榮(1998)은 사개송도치부법의 原理를 설명한 현병주(1916), 김진영(1972), 김기호(1986)의 記錄方法과 計算構造의 體系 및 用語가 서로 相異하나, 이들 原理가 複式簿記가 분명하다고 報告하였다. 이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AAP)이 그 당시에는 制定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相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송도사개치부법의 多樣性은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의 獨窓·獨尊性을 의미하며, 이는 오히려 西洋簿記의 影響을 받지 않았다는 反證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西洋簿記의 影響을 받았다면 이들의 論理構造와 會計處理方法이 類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허성관, 2014). 한편, 衫本德榮(1998)은 사개송도치부법과 관련된 實際帳簿들을 分析한 결과, 이들 帳簿가 會計年度全體의 會計循環過程을 包括하는 帳簿라기보다는 단순히 斷片的인 帳簿²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實證的인 면에서 사개송도치부법이 複式簿記라는 結論을 留保하였다. 이에 반하여, 윤근호(1984)는 대한천일은행(現, 우리銀行의 前身)帳簿를 檢討한 결과, 이들 帳簿가 사개송도치부법과 관련된 가장 발전된 단계의 複式簿記이고, 西洋式 複式簿記와 比較하여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獨特한 特色을 지닌 優秀한 기록법이라고 評價하여 複式簿記임을 證

24) 예를 들면, Hirai(1926)가 분석한 사개송도치부장부(현재, 일본 고베대학이 所藏하고 있음)기록 중에 가장 오래것은 1875년의 物出入記이다. 특정 회계연도의 會計循環過程 전체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分介帳, 元帳, 決算書가 1918년에 있지만 部分的인 記錄만 남아있다. 日記帳이 3쪽, 元帳이 2쪽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去來금액의 흐름으로 複式簿記與否를 確認할 수 없었다(허성관, 2014).

明하였다.²⁵⁾ 그 다음으로, 複式簿記의 한국起源과 관련된 연구의 초점은 현존하는 사개송도치부법과 관련된 회계기록이나 장부로서 알려진 것들이 과연 西洋의 複式簿記 導入以前의 것들이냐? 하는 점에 관한 연구이다. 이외에도, 現存하는 사개송도치부법과 관련된 會計記錄이나 帳簿로서 알려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 북한의 사회과학원이 소장하고 있는 장부로서, 1924년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 11집 「조선인의 상업」과 善生永助(1968)의 “開城의 商人과 商業慣習”에 의하면, “1920년경에 140-150년 전에 사용하던 完全한 開城簿記의 帳簿가 開城에서 발견되어, 그 지역의 박물관에 所藏된 바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조익순과 정석우(2007)에 의하면 이들 소장된 장부는 他給帳冊과 外上帳冊으로서, 1756년부터 1937년까지 기록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缺落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漢文草書로 기록되어 읽기가 어렵지만 年度로 보아서, 국내의 장부로서는 1756년 사개송도치부 장부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4년에야 이들 複寫本이 國內에 入手되어 脫草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 조익순과 정석우(2007)는 이들 중에서 1786년부터 1909년까지의 총 11권의 他給帳冊과 外上帳冊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元帳의 기입내용이 複式簿記의 初期形態임을 確認하였다. 그러나 이 장부에는 서양의 分介帳에 해당하는 日記帳과 決算書인 周會計冊이 存在하지 않아 長期間에 걸친 會計記錄임에도 불구하고 複式簿記 與否를 檢證하는 데는 完全한 자료가 될 수 없었다. ii. 平井泰太郎(1926)이 獨逸에서 發表한 “한국 고유의 사개송도치부법”에서, 19세기후반의 特定人의 會計帳簿(決算內譯)를 報告하였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기록이 몇몇의 사진이외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윤근호, 1970). iii. 善生永助가 소장하던 장부(1875-1908년, 開城簿記 3책)는 所在가 現在 不明確한 狀態로, 過去 그의 論文에서만 會計記錄의 確認이 가능한 상태(寫眞 3매; 日記帳, 帳冊의 帳簿面)이다. iv. 우리은행의 전신이었던, 대한천일은행(1899년 설립)이 사개송도치부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會計處理를 하였으나, 1906년 이후에는 西洋의 複式簿記를 사용하였다. 한편, v. 最近에 報告된 開城商人의 後孫인 박영진가(家)의 사개송도치부법과 관련된 帳簿가 發見되어, 複式簿記에 대한 보다 深層的이고 體系的인 研究결과가 紹介되고 있다(허성관, 2014; 등). 이들 주요내용은 정리하면 다음 제3절의 내용과 같다.

제 3 절 박영진家の 사개송도치부법의 研究

먼저, 박영진家 帳簿의 주요簿는 日記帳, 他給帳冊, 周會計冊이며, 補助簿는 各人物 出入記, 各人會計冊, 外上抄이다. 이밖에도 토지거래와 관련된 田畝文記謄錄이 있다. 補助簿인 各人物 出入記는 個人別 商品賣買를 紀錄한 장부이며, 各人會計冊은 박영

25) 그러나 大韓天日銀行이 보관하는 帳簿 中에서 分介帳은 1899년 1월29일부터 1903년 10월30일까지, 決算書는 1900년부터 1905년까지 기록이 있으나, 元帳(帳冊)은 1899년 6월 기록만 있기 때문에 會計年度 全體의 會計循環過程이 複式簿記인지를 金額으로 確認할 수는 없었다(윤근호(1984)).

진家와 共同으로 사업한 會計實體의 會計와 同業者 個人과 박영진家 사이의 去來를 기록한 장부이다. 外上抄는 主要 去來處別로 外上去來를 記錄한 帳簿이다. 특히, 이들 장부의 會計記錄 中에서, 分介는 去來의 二重星과 貸借平均의 原理에 基礎하고 있다. 아울러, 前期와 決算 및 帳簿構造도 複式簿記體系를 이루고 있어, 사개송도치부법이 複式簿記라는 점을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다(허성관, 2014). 박영진家の 會計帳簿記錄 中에서 會計年度 全體의 會計循環過程인 分介, 轉記(posting), 決算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完璧하게 具備되어 있는 회계연도는 1892년부터 1900년까지 9년이다. 이처럼, 박영진家の 장부는 西洋簿記의 傳來以前인 1887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현병주(1916) 이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개송도치부법의 複式簿記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最初의 帳簿이다’ 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숙(2011b)과 Lewis 및 Huh(2013)는 먼저 박영진家 장부의 體系와 記錄方法 등을 검토하여 사개송도치부법이 複式簿記임을 確認하였다. 허성관(2012)은 박영진家 장부의 7차 회계연도인 1893년 9월16일부터 1894년 9월15일까지 595건의 分介의 正確성과 轉記의 完全成 및 財務諸表 作成過程을 오늘날의 複式簿記와 比較·檢討하였다. 比較·檢討한 결과, 박영진家の 회계장부의 記錄方式과 會計處理方法, 특히 分介處理는 貸借平均의 原理가 행해져 오늘날의 複式簿記 原理와 一致하였다. 總額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오늘날의 複式簿記와는 差異가 있지만 複式簿記의 原理 自體를 毀損하는 것은 아니다(이들은 帳簿에 列記(才)記號, 爻周(△)記號 등으로 表示하고 있다. 計定科目 中에는 名稱과 實體의 關係가 明確하지 않는 新冊, 別費條, 牛稅條 등이 있는데, 이는 타인이 자신들의 장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新冊은 所有主와의 去來를 기록하는 계정으로 借邊殘額이면 자산으로, 貸邊殘額이면 부채로 貸借對照表인 周會計에 보고하는 特殊計定이다. 뿐만 아니라, 個別 費用計定이 없는 대신 일정 금액을 神策에 前渡하여 一般管理費를 支出하고 회계연도 말에 精算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결과, 所有者持分은 一般管理費 總額만큼 減少하였다. 이와 같은 會計處理方式은 神策이 오늘날의 株主로부터의 借入金과 株主에 대한 貸與金 및 假支給金を 統合하여 활용하는 것과 類似하다. 이는 異例的인 계정이지만 複式簿記의 原理에 어긋나지 않는 독창적인 會計處理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영진家 帳簿의 周會計는 資產合計가 負債와 資本 및 當期純利益의 合計와 正確하게 一致한다. 決算過程에서, 商品賣買利益과 金錢貸借의 純利益을 구분하여 계산하였으며, 損益計算書인 會計斟酌抄는 金錢貸借의 純利益만을 계산하였다. 이외에도, 支給利子和 收入利子에 대해 日記帳에 修正分介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元帳에 修正事項을 기재하고 修正한 금액을 반영한 잔액을 貸借對照表에 표시하고 次期로 移越하였다. 따라서 박영진家の 사개송도치부 장부는 利子計算에 관한 한 發生主義 會計基準을 遵守하였음이 확실하다. 減價償却費와 入金 등에 대한 修正은 없었으며, 所有主持分에 대해서 15%의 利子를 計上하여 費用으로 認識하고, 當期純利益 계산에서 差減하였다. 이러한 分析結果에 따라, 허성관(2012)은 朝鮮의 사개송도치부법이 부분적으로 發生主義에 基礎한

複式簿記임에 대해서는 再論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허성관, 2014). 특히, 貸借平均의 原理에 違背되지 않는 特殊한 計定과 會計處理方法 등을 사용한 것은 오히려 박영진家 장부의 獨創性, 獨尊性이라고 評價하였다. 結論적으로, i. 사개송도치부법이 複式簿記體制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學界에서 大體적으로 認定되으나, ii. 그 기원에 있어서는 大體적으로 18세기後半 이후의 자료가 발견되어, 現存하는 자료로써 우리나라의 複式簿記의 起源說을 뒷받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未備하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사개송도치부법이 갖는 會計學的 含意

우리나라에 開城商人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던 開城(松都)簿記, 즉 사개송도치부법이 각 補助簿의 區別과 貸借一覽表 등에 대한 記入方式의 차이²⁶⁾이외에는, 大體적으로 主要簿의 記入 등 全般的인 記入方式과 表示 등은 이탈리아에서 生成된 서양의 複式簿記에 매우 符合하거나 보다 나은 것으로 報告되었다(윤근호, 1970). 예를 들어, 松都簿記에서 計定은 人名計定과 科目計定으로 구분되지만, 人名計定이 必修 核心計定이고 科目計定은 그 表記를 省略해도 되는 副次的인 計定이다. 따라서 計定은 人名과 同義語이다. 그리고 人名計定은 현병주 등의 實際人名과 비단秩, 홍삼秩 等の 擬制人名으로 구분된다. 비단秩 等の 擬制人名에는 原則적으로 [질(秩)]이라는 문자를 附加해야 하지만 實務적으로는 省略하기도 한다. 비단, 인삼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까지 人名으로 擬制하는 이유는 會計는 기본적으로 人名과의 주고받음이라는 原則(즉, 사람간의 거래)에 따른 것이다. 즉, 人名이 아니면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이원로, 2011). 한편, 현병주(1916)는 사개송도치부법이 複式簿記임을 주장하고, 補助簿와 오늘날의 財務諸表는 記入方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 主要簿의 記入과 內容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였다(홍정화·장영란, 2014). 더 나아가, 윤근호(1984)는 사개송도치부법이 高麗時代의 首都인 個性의 商人들이 중심이 되어 활용되어 왔다는 소위, 複式簿記 西進說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윤근호(1984)의 高麗時代 起源說은 고려시대의 實際帳簿가 現存하지 않아 確證할 수가 없다. 하지만, 最小限의 18세기 중반의 장부(善生永助, 1968; 조익순과 정석우, 2007)가 現存하며, 記帳方式과 會計用語 등이 西洋의 複式簿記(Pacioli, 1494)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獨創性이나 獨尊性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現존문헌과 연구결과 등을 綜合하면, 會計史的으로 사개송도치부법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最小限 18世紀중반以前에 獨創적으로 創製

26) 예를 들어, 분개의 경우 ①基本記號로서 入去(入出과 同義語)을 사용하였다. 즉, ■ 入: 금품을 받은 경우(現行 簿記의 貸邊)이며, ■ 去: 금품을 준 경우(現行 簿記의 借邊)이다. 또한, ②부기기호로서 上下를 사용하였다. 즉, ■ 上: 현금을 수취한 경우(現金殘額에 加算)이며, ■ 下: 현금을 지급한 경우(現金殘額에서 差減)이다. 분개는 원칙적으로, i. 현금거래를 1행으로 분개 완료하였으며, ii. 移替去來는 入去兩方別行으로 분개(入·去行의 기록순서는 임의이다)하였다. 특히, 거래사실을 帳冊에 重記하여 인명별로 入去殘額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점이 西洋의 複式簿記와의 差異라고 할 수 있으나, 根本原理는 大同小異하다.

된 複式簿記²⁷⁾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처럼, 사개송도치부법이란 우리 고유의 複式簿記방식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²⁸⁾ 사개송도치부법의 帳簿記錄은 資本主에 대한 財産狀態의 報告내지 確認으로 볼 수 있다. 즉, 決算帳은 會計冊에서 算出된 當期純利益을 다시 한 번 數值的으로 檢證하는 동시에, 이 純利益을 資本主計定에 移替하기 위한 事前的인 節次이다. 개인이든 법인사업장이든 當期純利益이 確定되면, 이를 出資한 資本主의 計座에 移替하는 分介를 실시해주어야 한다. 資本主와 經營者가 同一人일지라도 이 분개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資本主(資本主)와 經營者를 分離한 會計概念으로써, 資本主의 立場에서 會計處理를 한 것이 아니라, 會計實體인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회계처리를 행한 實體의 概念(Entity Theory)에 基礎한 것이다. 이러한 決算帳은 現行的 簿記시스템에는 없는 우리 固有의 獨特한 會計概念과 會計處理方式이며, 일종의 事前的인 節次이다. 즉, 當期純利益을 數值的으로 再確認하는 동시에, 資本主計定에 移替할 金額과 磨勘 및 移越分介項目乙 事전에 把握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決算帳에 기록된 사항들이 후록복부라는 次期 日記帳에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分介되고, 그 分介結果가 각 帳冊에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松都簿記는 磨勘 및 移越分介를 통하여 當期純利益이 資本主의 計定으로 移替되어 資本主의 持分을 期末決算日 현재의 금액으로 반영해주는 고도의 시스템이다. 또한, 사개송도치부법은 諸 帳簿를 통하여 財務諸表 作成은 물론, 중요한 情報의 提供도 가능하게 한다. 會計는 重記²⁹⁾가 그 核心이다. 日記帳에서 帳冊으로, 帳冊에서 會計冊으로, 會計冊에서 損益計算書로 거듭 기록하여 計定別로 殘額을 算出 集計하는 것이 會計이기 때문이다(이원로, 2011).³⁰⁾ 즉, 日記帳은 帳冊작성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특히, 그 당시에는 帳冊의 役割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이 日記帳에 의하여 帳冊이 작성되는데 장책은 日記帳에 의해 發生된 모든 去來 內容을 그대로 전기하여 각 計定の 貸借金額과 殘額을 계산해 주며, 각 個人別 債權과 債務 等義 明細도 나타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去來를 日記帳에 分介하고 이를 帳冊患 茶時 옮겨 的는(即, 轉記) 이유는 計定, 즉 人名帳冊 別로 殘額을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帳冊에서 殘額이 산출되면 아래의 論理에 따라 計定 또는 人名殘額을 4掛로 分離(捧次, 給次, 損失, 費用; 즉 4介)하여 會計冊을 작성한다. 사실상 이것으로 會計는 거

27) 예를 들어, 捧次와 給次라는 용어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는 松都簿記, 朝鮮簿記만의 獨特하고 創意的인 용어이다. 周易·論語·孟子·墨子·史記·自治統監 等 그 어느 中國의 古典文獻에도 없는 用語이다. 捧次와 給次 중 捧次라는 단어는 그 어느 나라의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한국 한자사전에는 給次(돈을 치러주어야 함 혹은 그 치른 돈을 말함)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현행 中國語辭典이나 日本語辭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給次 역시 대손(貸損, 回收不能의 債權金額)이나 外上처럼 한국 고유의 단어라고 할 수 있다. 捧次와 給次라는 용어는 인근의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 고유의 용어이다. 이렇게 獨創的인 論理와 概念을 지닌 松都簿記가 借邊과 貸邊 等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暗號의인 用語만을 사용하는 西洋簿記의 亞流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西洋簿記가 松都簿記의 複寫本일 뿐이다(이원로, 2011).

28) 황돈기. “우리나라 회계의 사적고찰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13-15(홍정화·장영란, 2014).

29) 重記는 複式簿記의 必須要件으로서 同一事項을 2번 記入하는 것을 의미한다.

30) 이러한 관계로, 朝鮮王朝實錄에는 會計用語대신에 重記라는 用語도 꽤 많이 기술되어 있다.

의 완료된 것이다(이원로, 2011).

■ 捧給損益 判定對象: 各 帳冊의 殘額

■ 捧給損益 判定論理: 回收可能與否, 償還必須與否이다. 여기서, ◇ 捧次(資産): 일거필입금 즉, 회수가능금액인 받을 돈이며, ◇ 給次(負債): 일입필거금 즉, 상환필요금액인 줄 돈이며, ◇ 損失(費用): 일거불입액 즉,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며, ◇ 利益(收益): 일입불거액 즉, 상환 불필요금액이다. 이를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收入/支出과 捧給損益 4 介

收入/支出	4掛	解 說
收入(入金)	給次(채무)	수입액 중 도로 줄 돈 = 給次(債務)
	利益(수익)	수입액 중 비 반환금액 = 利益(收益) * 收益 = 利益性 收入金額(利益性 入金額)
支出(出金)	捧次(자산)	지출액 중 회수할 돈 = 捧次(債權, 資産)
	損失(비용)	지출액 중 회수 불가능금액 = 損失

* 捧給損益 4掛는 상기 [표 2-6]과 같이 入金과 出禁이라는 兩掛에서 派生된 것이다. 즉, 陰陽 兩掛에서 捧給損益이라는 4掛가 派生된 것이다.

따라서 日記帳과 帳冊은 실제의 모든 去來情報를 의미가 있게 수록한 財務報告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決算諸表인 會計冊에 의해서도 情報가 제공되고 있다. 즉, 會計冊에서 財物記錄을 포함한 給次秩, 捧次秩簿는 財務狀態表와 損益計算書가 提供하는 모든 情報를 포함하고 있으며, 損益計算書의 內容은 決算帳의 利益秩과 消費秩에서 詳細하게 보여주고 있다(황돈기, 1996). 사개송도치부법의 초기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 個人企業의 形態로서 資本主가 實質的인 會計主體가 되고, 形式上의 主體로서 金櫃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營業活動은 오직 資本主의 이익만을 위해서 遂行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去來가 金錢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清算되었기 때문에, 金櫃를 行爲와 判斷의 主體인 企業自體를 依微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企業實體의 概念(entity theory)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形式上 主體의 金櫃의 사용은 資本主의 企業에 대한 個人的 債權·債務와 公式的 所有者持分을 엄격히 分離한 것으로 이는 資本主 人名計定, 自己相互計定을 설정하여 資本金을 처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사개송도치부법이 모든 去來對象을 貨幣價値로 評價하여 기록하고 있어서, 現在의 複式簿記原理의 基本的 假定(會計公準; accounting postulate)인 貨幣測定의 假定(money measurement concept)을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例는 사개송도치부법의 例示에서 貨幣測量的 單位인 1원(圓), 1전(錢), 1리(厘)의 表示나 대한천일은행 帳簿의 1원(元), 1전(錢), 1리(厘)의 표시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貨幣價値의 表示는 商品去來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巨大 商人들은 特定商品의 취급보다 布木, 田穀, 人蔘, 雜貨, 海産物 等 수많은 종류의 商品을 취급하였으므로, 일일이 購入時의 取得原價를 把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推測된다. 따라서 수많은 種類의 商品이 빈번히

出入되고 購入原價도 다른 경우도 많았을 것이므로, 이를 物物의 價値로 算定하지 않고 銀本位制度에 立脚하여 그 價値를 評價하였다. 이러한 環境與件에 비추어 보아 商品價値의 算定을 財物記錄에서 보듯이 時價보다 낮은 低價로 評價하는 會計慣習(accounting convention; 오늘날의 保守的 會計處理方法으로서 低價法의 適用)이 있었으리라 推測된다. 이처럼 사개송도치부법이 우리固有의 記帳方式을 維持함으로써 西洋의 複式簿記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獨特한 思考方式과 體系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개송도치부법이 더 이상 活潑하게 活用되지 못한 점은 朝鮮時代의 商業賤視文化와 商人을 下流階層으로 분류함으로써, 商業의 發展과 簿記法의 發展이 沮害되었으며, 1910년대 以後 일본에 의해 西洋의 複式簿記가 導入됨에 따라, 우리固有의 置簿法(簿記法)이 점차 衰落하였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사개송도치부법이 記數法에 의한 表現形式의 改善, 外上帳冊과 他給帳冊의 元帳分離 等에 따른 同一計定 重複, 決算에 있어서 期末修正分介를 하지 않는 점 等의 短點을 보완한다면, 現代의 複式簿記와 比較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특히 持續的인 자료의 發掘 等으로 그 生成時期 및 記帳原理의 優秀性을 體系의으로 정리한다면, 이탈리아 複式簿記보다 먼저 生成된 世界最初의 簿記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원로, 2011).

제 5 절 우리固有의 非營利 會計機關에 관한 研究

傳統會計와 관련된 우리固有의 非營利機關은 寺刹, 書院, 契, 宗中 등을 들 수가 있다. 먼저, i. 寺刹의 회계기록과 관련하여, 허홍식(2011)은 高麗祖의 會計에 관한 古文書는 佛敎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寺刹이 佛敎 고유기능인 修道와 敎化는 물론이고, 出版, 四敎, 祭儀 등도 담당하여 이와 관련된 會計資料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허성관, 2014). 가장 직접적인 會計資料는 寺刹에 설치된 寶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로서, 보는 特殊目的의 共同基金으로서 오늘날의 재단법인과 유사하다. 이러한 寶의 문서에는 우리 固有의 會計用語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즉, 元金 또는 資本을 의미하는 本色, 利子를 의미하는 息, 오늘날 分介에 해당하는 開坐, 입금과 출금 표시로서 上과 下, 上과 下와 관련된 捧上과 貸下 등의 용어가 寶의 문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들은 朝鮮祖 非營利機關 會計文書와 사개송도치부법 등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기원이 최소한 高麗時代임을 알 수 있다. 이 用語들은 中國 文獻에 보이지 않고 吏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固有의 獨創的인 會計用語임이 확실하다(허홍식 1982a, 1982b; 허성관, 2014). 그 다음으로는, ii. 朝鮮時代의 敎育機關의 會計記錄에 관한 것으로서, 敎育機關은 官學)과 私學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書院은 代表的인 私學이었다. 書院은 先賢을 奉祀(奉祀)하는 祠와 敎育을 담당하는 齋가 結合되어 있었으나, 敎育이 중심이며 주세붕이 1543년(중종 38년)에 建立한 白雲洞書院이 우리나라 最初의 書院이다. 書院의 會計와 관련하여, 정기숙(2011a)은 紹修書院의 傳掌記와 玉山書院의 會計記 및 都錄을 간략하게 보고

하였다. 예를 들어, 傳掌記의 會計記錄에는 月別會計와 白日場行事 등과 관련한 會計記錄이 있으며, 同 記錄에는 資產增加는 加入으로, 支出合計는 用으로, 在庫는 余 또는 在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iii. 相扶相助를 目的으로 하는 契는 朝鮮時代 鄉村社會의 紐帶를 다지는 핵심적인 조직으로서, 運營規約인 契憲을 만들어 組織을 維持·運營하였다. 특히, 喪禮 등 마을에 필요한 器物과 財源을 契員의 출원으로 마련하여 필요한 倉庫, 亭子, 書齋를 建築하였다. 契의 기금운영과 수탁책임은 별도의 有司(오늘날의 會計實務者)과 관리하였다. 契의 代表的인 現存하는 帳簿가 全南 영암의 장암마을의 南平 文氏의 門中 契에서 작성한 會計帳簿인 『用下記』이다. 『用下記』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제6절에서 상세히 서술한다.

제 6 절 朝鮮時代의 非營利 會計인 『용하기』에 관한 研究

1. 『용하기』와 會計간의 관계

朝鮮時代의 非營利團體의 會計行爲 中에서도 朝鮮後期 鄉村社會의 契와 會計간의 關係를 간략히 소개한다. 契는 相扶相助의 經濟的 機能과 倫理的 社會秩序의 維持를 目的으로 하는 朱子的 鄉約이 融合한 형태로 조직되는데, 全南 영암군 장암마을의 契는 道德的 正서보다도 經濟的 기능이 강한 조직이라는 특징이 있다(전성호, 2007). 韓國의 固有의 會計學에 대한 研究는 1916년 현병주의 『실용자수 사개송도치부법』이 出刊된 이후, 대부분의 연구가 開城商人들의 사개송도치부법과 같은 營利團體의 會計方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이중 대표적인 논문은 윤근호(1984)의 『한국회계사연구』와 조익순(2000)의 『四介松都治簿法前史』이다. 그러나 이들 업적은 대부분 19세기 開港期前後의 자료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 固有의 會計實態를 제대로 把握하는 데는 다소 未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 영암 장암마을 南平 文氏의 古文書 中에서 會計帳簿인 『용하기』에 基礎하여,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한국의 非營利組織인 契중심의 內生的인 會計文化 中의 전라도 영암군 장암마을에서 形成된 각종 非營利組織(門中 契)과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용하기』와 會計간의 關係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概觀한다.

2. 『용하기(用下記)』의 帳簿內容과 會計的 特性

가. 『용하기(用下記)』의 種類

영암 장암마을에 會計記錄과 관련된 古文書는 대부분 成冊 古文書로서 그 表紙에 “***用下記”라고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용하기』라고 지칭한다. 『용하기』는 대체적으로, 序文(계의 形成目的, 趣旨 등)에서부터 座目, 절목 順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座目은 契의 構成員, 즉 名單이며, 節目은 契의 運營原則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契의 設立目的에서부터 運營方法과 原則에 따라 시행된

結果報告書가 바로 『용하기』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후 追約의 형태로 補正된다. 장암마을의 고문서인 『용하기』는 하나의 會計帳簿로서, 會計主體別로 會計情報로서의 公共性和 透明性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모든 去來와 事件들은 빠짐없이 기록되고 公示되어 왔다. 참고로, 『용하기』의 種類를 살펴보면, 먼저 『大宗契 用下記』는 조상의 祭祀와 門中の 結束을 도모하는 契이며, 『小宗契 用下記』는 같은 門中 內에서 각각의 派別로 독립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해 온 契이다. 그리고 『洞契 用下記』는 동일 마을에 다른 門中들과 함께 마을 洞契를 형성해 운영해 온 契이다. 이외에도 『婚扶契 用下記』는 婚禮行事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하여 조직해 온 契이며, 『重修下記』(여기서, 下記는 돈을 치른 내용을 적은 장부를 의미한다)는 建物 등을 新修(重修)할 때 기금모음과 원활한 중수를 위하여 결성한 契이다. 이처럼 별도의 기금조성과 행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새로운 契가 결성되었으며, 이들 契마다 『***用下記』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用下記』가 한 마을에서 계속 형성된 이유는 合理主義에 기초한 儒敎文化의 產物이라 할 수 있다. 즉, 儒敎文化는 祭禮, 婚禮, 喪禮 등에 일정한 格式과 節次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祭需, 婚需, 喪需 등의 市場이 形成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需給은 市場原理에 기초하기 때문에 合理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禮에 따른 格式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基金이 필요하며, 이러한 基金은 獨立的으로 透明하게 調達, 運營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會計記錄과 帳簿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會計帳簿가 바로 『***用下記』이다.

나. 용하기(用下記)의 外形的 特徵

『용하기』의 外形的 形態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세로쓰기배열(珠板의 배열과 일치)로서, 과거 그리스의 알파벳의 表記나 이집트의 象形文字의 가로쓰기표기(配列)법과는 相沖的이며, 훨씬 더 우수한 表記法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용하기』 이후의 모든 會計帳簿의 記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발견된 『용하기』의 原 帳簿를 보면, 帳簿記錄이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상단부분은 숫자와 文字를 각각 區分하여, 숫자는 숫자끼리 모두 四角形 形態로 묶어서 表示하였다. 文字의 경우도 모두 묶어서, 해당項目 등 각 거래의 性格別로 네 개의 모서리를 圓形의 테두리形態로 표시하였다. 中間부분은 세로쓰기배열을 가로쓰기로 轉換하였을 경우, 서양의 알파벳인 “T”形態로 表示되어 이는 西洋의 會計形態인 “T”(T計定)형태로 轉換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T”形態를 중심으로 左右兩面(貸借)이 正確히 一致한다는 사실이다. 즉, 左右의 숫자가 서로 마주보게 記錄되어 소위, 西洋의 會計特徵인 “貸借平均의 原理(Dual-Aspect Concept)”가 『용하기』에서도 “T”形態를 중심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용하기』의 모든 기록은 “***秩”의 標題로 기록되었으며, 秩은 會計記錄(內容)의 基本主題語로서 秩을 中心(基本單位)으로 去來가 묶어져 表示되어 있다. 특히, 『용하기』는 “內”字를 中心으로 우측의 去來記入(이는 “T”형태에서 좌측에 配列된 事項들로서,

支出에 해당된다)은 숫자를 文字보다 항상 나중에 記入하였으며, 좌측의 去來記入(이는 “T”형태에서 우측에 配列된 사항들로서, 收入에 해당된다)은 이와 反對로 숫자를 文字보다도 먼저 記入하는 規則을 갖고 있다(전성호, 2007). 여기서, “內”字는 空間의 안과 밖의 區分表示로서, 『용하기』에서는 左右 兩面(즉, 西洋의 借邊과 貸邊)을 區分하는 特殊한 會計用語로서 항상 “秩”字와 함께 사용되었다. 그리고 下段 부분은 陰과 陽의 均衡을 표시하는 太極文樣의 形態로 나타나있다. 종합하면, 『용하기』의 會計記錄의 分類方法은 “內”字를 기준으로 流入(+)項目과 流出(-)項目을 相互 區分하여, 이들 項目을 反對의 位置에 記錄(分類)함으로써 左右의 均衡(balance; 대차평균의 원리가 기능) 등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會計本來의 機能과도 符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西洋의 複式簿記는 借邊(Dr)과 貸邊(Cr)이라는 特殊形態의 會計記號(用語)로 左右兩面을 區分하여 均衡을 맞추었고, 『용하기』는 이를 “內”字를 基準으로 空間의 兩面을 區分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表記手段의 差異이지, 그 會計處理方法의 差異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會計處理의 意味는 서로 同一하다는 점에서, 複式簿記로의 成立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다. 會計記錄(去來)의 二重性 : 磨勘 및 開始記入간의 二重性

『용하기』는 非營利團體인 門中이나 마을의 財務狀態 및 運營狀況을 契員들에게 報告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損益計算書, 혹은 財務狀態表정도의 水準은 아니지만 流動性 資産(즉, 벼, 쌀, 돈(錢) 등)의 흐름과 在庫量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定期的인 報告體系인 오늘날의 決算(節次 및 報告體系)과 유사하게 進行되었다. 예를 들어, 『용하기』는 收穫年度의 春秋期間에 일어난 流動資産의 變化를 “벼秩”, “돈秩”, “쌀秩”로 區分하여 보고하였다. 『용하기』의 流動資産에 대한 會計處理는 年度別 連續性を 維持하기 위해서 決算의 경우에 磨勘과 開始記入간의 二重性を 確保하고 있다. 또한 計定간의 連繫性を 위한 計定간의 二重的 去來(즉, 오늘날의 去來의 8要素에 해당됨)를 確保하고 있다. 이러한 會計處理方法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收入項目의 科目(△△△)과 숫자(###)는 “벼秩”, “돈秩”, “쌀秩”에서 각각 “傳受租”, “傳受錢”, “傳受米”이란 항목의 開始記入을 갖는다. 『용하기』의 모든 計定은 이러한 開始記入으로부터, 前期收入에서 支出을 差減하고 그 部分의 合을 계산하여 표시한 ‘已上用’ 또는 ‘已上用合’이란 磨勘記入으로 決算을 終了한다. 여기에서, 合計項目은 ‘內’字의 右側에 記入하고, 收入을 의미하는 “△△△###”의 配列順序를 갖는 項目들의 合計인 “合*****內”와 比較하여 그 차이를 전여(傳與; 留)라는 項目으로 처리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전성호, 2007).

$$\text{傳受} + \sum \triangle\triangle\triangle\### - \sum \triangle\triangle\triangle\###(\text{已上用合}) = \text{傳與(留)} \quad [\text{기본회계등식}]$$

상기 基本會計等式을 오늘날의 西洋 複式簿記의 시스템으로 轉換하면 다음과 같다. 즉, 前期移越 + (當期) 收入總額 - 支出總額 = 次期移越이다. 즉, 傳與(留)란, 위의 식에서 남은 항목의 금액은 次期로 넘긴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傳受는 次期の

開始記入으로서 傳與(留)의 금액과 一致한다. 이렇게 會計處理를 함으로써, 前年度와 次年度가 當該年度를 中心으로 連結되어 會計處理의 繼續性(繼續性 혹은 一貫性의 原則)이 維持된다. 이처럼, 『용하기』의 同一項目(오늘날의 計定科目)의 期間對 期間간의 連結은 傳受와 傳與(즉, “留”)로 連結되어 期間간의 繼續性의 原理가 確保되어 있어, 오늘날의 會計시스템(決算時的 次期 및 前期移越計定の 設定)과 同一한 方法으로 會計處理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하기』는 年度마다 特殊한 狀況이 발생(收穫量의 變動 等)하여 上記等式이 成立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加用(加用), 인용(引用), 加用환보(加用還報), 推租(推租), 推米(推米), 推錢(推錢)³¹⁾ 등의 用語를 사용한 決算方法 等에 의해서, 磨勘記入과 開始記入이 相互 貸·借邊에 二重 計上됨으로서 繼續性의 原則이 維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磨勘記入과 開始記入의 繼續性으로 인하여, 『용하기』는 약 270年間 斷絶되지 않고 命脈을 維持해왔다. 즉, 決算時에 磨勘記入과 開始記入간의 連繫性으로 인한 二重性으로 인하여, 年度別로 會計 記錄이 斷絶되지 않고 體系의 維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라. 計定科目 간의 二重성과 測定手段

『용하기』는 定期決算과 磨勘·開始記入간의 二重性에 의한 期間적 繼續性 이외에도, 計定科目간의 連繫性(즉, 이는 特定去來나 事件의 發生 時에 去來內譯을 貸借平均의 原理를 適用하여, 借·貸邊에 記錄하게 함으로써 空間的 繼續性을 確保하는 것을 의미함)도 具備하여야만 繼續性에 따른 會計去來(記錄)의 二重性의 原則이 確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複式簿記에서의 二重性(Dual-aspect Concept)이란 貸借平均의 原理에 符合하는 計定記入(記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용하기』에서, 이러한 二重性의 適用事例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³²⁾ 즉, 『용하기』의 일부기록에는 同一한 去來內譯에 대하여, 서로 다른 計定科目에 相互 교차되는 位置에 두 번 記入함으로써 去來의 二重性이 實現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용하기』는 西洋의 複式簿記시스템만큼의 精巧한 體系는 갖추지 못하였지만, 最小限 單式簿記以上の 簿記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용하기』의 帳簿記錄에 있어서, 소위, ‘***秩’이라는 特殊會計用語를 中心으로, 同一部類끼리 묶어 一括의 記入하였다는 점이다.³³⁾ 이외에도, 이들을 다시 ‘內’字와 (計定)科目 및 숫자의 配列로 (+), (-)적 要素로 各各 區分하여, 상호교차하여 兩面的 體系(소위, 貸·借邊; Dual-aspect)의 計定에 記入함으로써, 各 計定 間に 連繫되는 去來記入의 二重性도 完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하기』의 計定記入

31) 여기서, 加用이란 전술한 基本等式에서, 만약 當期의 支出總額이 收入總額보다 큰 경우로서 次期의 移越額이 없는 마이너스(-)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傳與’대신에 ‘加用’ 또는 ‘引用’이라는 負債項目으로 表示하였다. 次期에는 收入란 대신에 支出項目에서 開始記入을 記帳하여 ‘加用 還報’의 方法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必要한 項目을 推定하여, 不足한 부분을 次期(未來)의 收入(豫想額)에서 당겨놓은 경우로서, 推租, 推米, 推田이라는 特殊用語를 사용하였다.

32) 전성호(2007), 전계서, pp.244-252. 참조.

33) 『용하기』에서 “***秩”이란 “內”자와 함께 特殊機能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標題(즉, ***秩, 예; 쌀秩)를 가지고 標題와 관계된 사항들을 모두 한 군데로 모아놓는 일종의 集計場所를 나타낸다(정기숙 외 2인, 2004).

에 있어서는 하나의 測定手段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 오늘날의 會計測定시스템과 차이가 나타난다. 즉, 오늘날의 貨幣性 資産(Monetary Assets)에 해당되는 과목은 모두 당시의 貨幣인 ‘常平通寶’로 기록(兩(兩), 전(錢), 분(分))되고, 在庫資産 등 其他 非貨幣性 資産(Non-monetary Assets)에 대해서는 각자의 固有의 度量衡 單位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벼와 쌀의 경우에는 각각 석(石), 두(斗), 승(升), 합(合)으로 기록하였고, 누룩이나 목맥의 경우에는 각각 개(介)나 원(員)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測定시스템은 오늘날의 單一의 測定시스템(Money Measurement Concept)과는 배치된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용하기』는 現在の 單式簿記體系를 넘어서는 會計體系라고 할 수 있다.

3. 『용하기』의 生成과 發展過程에서 나타나는 主要 特徵

1741년부터 現在까지 存在하는 『용하기』의 帳簿體系가 現在까지 存在하는 會計記錄의 時代別 生成과 發展過程을 그대로 記錄함으로써, 傳統會計의 記帳方式과 會計處理方法의 體系的 進化過程에 관하여 여러 示唆點을 提供하고 있다. 이처럼, 『용하기』의 帳簿體系는 體系的으로 一貫性이 있게, 長期的으로 持續되어왔으며, 또한, 時代的 狀況의 變化에 대한 適應性도 提供하고 있다는 점에서 會計史의 研究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1756년의 『용하기』부터는 去來의 記入體系에 있어서, 同一 種類의 去來는 모두 適切한 標題를 가지고 同一 種類의 去來를 한 군데(“***秩”로 分類)로 묶어놓아 視覺的 效果를 높이는 等의 計定分類와 記入方法 等に 있어서는 1750年代보다는 다소 進化되었지만, 이들 去來의 兩面的 性格(즉, 去來의 二重性)을 반영한 計定記入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去來記入에 있어서 兩面的인 要素(즉, 오늘날의 去來의 二重性)를 갖지 못한다는 限界點이 있다. 이후, 1757년의 『용하기』의 帳簿體系에서는 去來의 二重性을 表記하는 記帳方式 等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적절한 標題語 下에 놓이면서도 같은 種類의 去來가 增價와 減少要素로 兩分되면서 記入되는 현상은 175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形態의 分類方式(同一去來에 대한 “***秩”의 標題에 의한 分類方式)이 計定の 兩面形態(Dual-aspect: 西洋複式簿記의 貸·借邊形態)를 具備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는 收入과 支出이 各各 區別되어 해당計定에 記錄(分介)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去來의 二重性이 해당 計定科目을 통하여 엄격히 行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예: 정기숙 외 2인, 2004, pp.9-10 ; 전성호, 2007, p.222 참조). 이처럼 1757년의 『용하기』 帳簿記錄은 이러한 모든 表記方法 等이 複合된 狀態로서 정확히 西洋의 “T”計定 形態의 帳簿 記帳方法과 매우 恰似한 모습으로 轉換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實證을 통하여, 去來의 二重性이 計定の 兩面性(貸·借邊)으로 表示(表記)되는 時期를 우리는 1757년의 『용하기』 帳簿記錄에서부터 그 起源을 찾을 수가 있다. 이와 相關한 先行研究에서, 현병주(1916)는 帳冊의 記錄에 있는 “內”字가 計定の 兩面性을 表記(예: “合.....內[合錢二十兩六錢七分內])”의 形

態로 表記됨)...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內”字는 帳冊의 記錄에서 捧次(收入)와 給次(支出)를 區分하는 中間符號로써, 計定の 二重性を 含意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윤근호(1984)는 이러한 “內”字와 西洋의 計定形態를 처음으로 比較·說明하면서, “오늘날 西洋簿記의 左右對照形式의 것(즉, 貸借平均의 原理의 適用)에 가까운 것이 된다.”라고 解析하여, 사개송도치부법과 西洋簿記와의 一致性을 처음으로 提示하였다. 윤근호(1984)는 현병주(1916)의 사개송도치부법의 計定の 兩面性에 대한 實證的 事例로서 ‘대한천일은행의 帳冊’을 提示하였다. 윤근호(1984)는 대한천일은행의 帳冊에서는 “內”字를 쓰지 않았으나, 上·下 兩端으로 區分하여 表記한 점에서, 서로 類似한 形態의 計定の 兩面性이 東·西洋 간에 實現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용하기』는 1757년부터는 1741년부터 1756년까지의 不完全한 모습에서 벗어나, 去來의 兩面性을 計定の 形態로까지 進化시켜 完璧한 體系의 會計帳簿로서의 位相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帳簿記錄은 理論的으로, 西洋의 “T”計定の 세 가지 構成要素인 計定科目과 貸·借邊의 表記方式이, 우리의 傳統會計 上의 “秩”과 “內”字를 中心으로 한 表記方式과의 關係設定(類似點)이 實證的으로 언제부터 體系的으로 사용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最初의 事例로 여겨진다(정기숙 외 2인, 2004). 전술한 내용을 綜合할 경우, 1741년부터 1757년에 西洋의 複式簿記로서의 시스템을 갖추는 약15年間的 『용하기』는 세 가지의 生成過程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秩”이라는 標題語를 大文字로 中間에 記入하여 計定科目을 設定하는 方式이다. 두 번째는 “습...內”의 特殊用語를 이용하여, 上段과 下段으로 空間을 複層構造로 구분하여 視覺的 效果를 倍加시켰다는 점이다. 끝으로, 收入項目은 項目을 먼저하고 金額을 나중에 配置하며, 이와 반대로, 支出項目은 金額을 먼저하고 項目을 나중에 配置하는 方式으로, (+)요인과 (-)요인을 각각 구분하여 空間의 二重性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하기』의 이러한 세 가지의 帳簿記入과 表記方式은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하여 漸進的으로 生成·發展되어 왔으며, 그 方法을 現在까지도 持續的으로 維持되고 있다는 점에서, 會計史的으로 보아도 매우 重要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評價된다(전성호, 2007).

Ⅲ. 理論的 背景 - 2

제 1 절 宗中會計에 관한 序言

1. 宗中會計의 研究目的과 研究方向

현재 傳來되는 대표적인 非營利組織의 會計文獻이 바로 전술한 全南영암의 장암마을의 『용하기』와 각종 門中(혹은 宗中)을 中心으로 作成·報告되는 宗中과 관련된 會計(이하, ‘宗中會計’라고 한다)이다. 예부터 우리민족이 행해왔던 祖上崇拜과 祭祀文化 등이 朝鮮初期의 儒敎的 價値文化와 接木되어, 宗族의 結合體인 宗中(宗中)³⁴⁾

組織이 自然發生的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宗中을 중심으로 墳墓를 守護하고 祭祀를 奉行하며, 종원(宗員; 종중의 구성원)들 상호간의 相扶相助와 親睦을 圖謀하는 慣行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宗中은 묘토(墓土), 위토(位土)³⁵⁾ 등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일부기록 중에는 衆中財産을 유지·관리하던 기록이 남아있다. 이들 記錄은 宗中財産의 取得이나 行事的 執行을 위하여, 宗中財産의 造成內譯과 使用處 등을 나타내는 오늘날의 收支計算書 概念으로 작성되었다. 오늘날 資本主義經濟의 外形成長과 더불어 宗中財産의 規模가 매우 增大됨에 따라, 宗中の 收支도 이전의 朝鮮時代 때보다는 훨씬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宗中財産의 外形成長에도 불구하고, 宗中財産의 處分과 運用 및 財務狀態 등과 관련한 會計處理나 報告方式 등에는 종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즉, 過去, 漢文이나 漢字 등 어려운 傳統, 傳來用語(史讀)로 사용되던 會計報告 및 方式 등이 한글이나 專門的인 會計用語 및 報告方式으로 代替된 것 이외에는 根本的인 變化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의 宗中회계는 크게 2가지의 問題點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종중 언론에 報道되는 宗中の 財産과 관련한 背任, 橫領犯罪이다. 이러한 事件의 發生原因은 宗中の 財産, 특히, 固定資産의 所有權에 대한 法律的 特性上의 問題點³⁶⁾이나, 宗中組織의 脆弱한 內部統制의 問題點 등에서 起因하고 있다. 두 번째, 거액의 資本이 所要되는 宗中事業 및 豫算의 意思決定過程에 대한 公示體系가 確立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問題點은 現行의 會計體系가 會計의 주된 目的事項인 “意思決定과 相關한 情報의 提供”과 “受託責任의 이행” 目的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會計의 役割 혹은 目的과 相關하여, 宗中の 會計處理 및 報告方式에 있어서 i. 왜 이러한 問題點들이 發生하며, ii. 이러한 問題點들에 대한 解決方案은 무엇인지? 에 대한 論議가 先行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問題點에 대한 原因 中の 하나는 變化된 宗中の 環境에 適合한 宗中の 會計處理基準이나 規範이 제대로 具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의 衆中財産에 대한 利害關係者들의 認識이나 法律的 背景, 經濟制度 등이 크게 變化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過去의 會計處理 및 報告方式 등을 단지 踏襲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의 解決을 위해서는 宗中會計라는 基本概念體系의 成立이 可能한가의 여부? 이다. 또한 만약 成立이 可能하다면, 어떠한 內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論議가 先行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研究課程에서 當面하는 懸案은 研究 資料의 不足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宗中들이 존재하지만 財産管理 및 運營方式과 狀態는 千態萬象이다. 그뿐만 아니라, 相關된 調査

34) 宗은 祭祀, 宗統, 宗族의 뜻이고 中은 外에 대한 內的 뜻으로 합하여 종족단체를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이다 (주현석, 종중재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35) 墓土(혹은 墓山)는 墓地를 포함하는 주변의 땅이나 산을 의미하며, 位土(혹은 祭位土)는 宗中の 운영(주, 제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작되는 논이나 밭을 뜻한다(주현석, 상계서, p.1).

36) 종중의 경우 독립된 법인격단체가 아니므로, 종중재산을 스스로 소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중재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을 종중의 대표나 종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종중총회(종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만약, 종회의결의 적법성이 결여되면, 무효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종중분쟁에 따른 소송이 종회결의의 무효 확인소송 등에 의해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統計資料도 거의 入手 不可能하다. 따라서 入手 可能한 몇몇의 宗中資料에 依存하여, 宗中財産의 運營實態와 狀態 등에 관한 事例研究를 進行할 수밖에 없는 限界點이 있다. 그러나 본 研究가 宗中會計에 關한 새로운 概念體系를 確立하는 動因이 된다면, 向後 關한研究를 위해서도 매우 意味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2. 宗中の 成立과 宗中財産 等の 法律的 體系 等

宗中은 法律的으魯는 첫째, 宗中自體는 法人으로 登記, 登錄을 하지 아니하는 한, “權利能力이 없는 社團”으로 취급된다. 이는 登記·登錄을 하여야만 法人格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不動産登記法 제30조 및 民事訴訟法 제48조에 의하여 宗中에게 登記能力과 民事訴訟의 當事者能力을 부여하고 있으며, 法人稅法 제1조에 따라 宗中은 收益事業에 대하여 法人稅 納稅義務가 있다. 이처럼 法律規程에 의해서, 宗中은 制限的으로 法人格을 認定받고 있다. 특히, 法人稅法의 關한규정은 宗中을 하나의 會計實體(Entity Concept)로서, 이미 稅法上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論議할 宗中會計에서 宗中の 會計實體를 認定하는데 重要한 根據 中の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이 宗中을 하나의 法律的 人格體(會計實體)로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宗中財産과 關한한 不動産의 登記나 預金主의 表記 및 이들 資産의 處分에 있어서, 宗長(宗長)개인의 名義로 대부분 行해지고 있어 刑事事件問題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宗中재산의 법률적 성격은 민법 제275조의 總有(總有)의 개념이다. 總有는 社團(社團)의 경우 構成員의 總合體인 社團自體에 管理·處分權이 歸屬되지만, 使用受益의 權限은 각 社員에게 歸屬되는 二重的 構造魯 離壘漁져 있多. 따로西 宗中の 定款이나 規約이 없는 경우, 宗中財産의 管理·處分權은 宗會(宗會)에 있으며, 使用·受益은 定款 등의 宗約을 따른다. 또한, 宗中은 權利能力이 없는 社團이므로 負債의 主體(主體; Entity)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宗中名義의 代表者의 法律行爲는 構成員이 總有的으로 債務者가 되고, 責任範圍는 宗中과 宗員 間的 關係, 宗中の 目的, 法律關係 등으로 보아 宗中財産에 限定되는 것으로 解析한다. 또한 代表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責任도 宗中이 宗中財産의 範圍 내에서 責任을 지며, 代表者도 行爲主體로서 個人的 責任도 並行하여 진다.

3. 宗中會計의 意義

가. 宗中會計의 概念과 定義

宗中會計에 대하여 先行연구는 거의 全無하여, 일반적인 財務會計이나 非營利會計 등의 概念體系(定義)를 참조하면, 먼저, 우리나라의 財務會計概念體系에서는 財務會計의 概念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즉, “財務報告는 企業實體 外部의 다양한 利害關係者의 經濟的 意思決定을 위해 經營者가 企業實體의 經濟的 資源과 義

務, 經營成果, 現金흐름, 資本變動 등에 관한 財務情報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의 정의는 營利會計的인 要素가 포함되어 있어서, 非營利組織인 宗中會計에 適用하기에는 限界가 있다. 한편, 非營利組織의 會計處理指針으로서는 韓國會計基準院(2003)의 “非營利法人 財務諸表作成과 表示指針書”가 있으나, 너무 複雜하고 專門的인 內容이 많아 宗中會計의 環境을 감안할 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宗教法人과 私學財團(學校法人) 등 非營利組織의 會計處理基準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한다(이우목, 2007). 이러한 概念體系와 宗中の 特殊性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宗中會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宗中會計는 宗中の 宗中財産에 대한 受託責任과 관련하여, 宗中の 利害關係者들이 合理的 判斷과 經濟的 意思決定을 내릴 수 있는 有用한 情報의 提供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事件이나 去來들을 認識·測定·寶庫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定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論議가 예상된다. 첫째는, 宗中の 實體(Entity)와 관련된 疑問으로서, 宗中이 과연 會計實體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다. 둘째는, 宗中會計의 目的과 이와 관련된 利害關係者의 範圍이다. 셋째는, 宗中會計에 適用되어야 할 基本假定(會計公準; Accounting Postulates)이 一般的 財務會計의 假定(公準)과 同一하게 適用될 수 있는지? 넷째, 宗中會計의 公示情報는 어디까지 包含되는지? 와 관련된 내용 등이다. 위의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이후 검토된다.

나. 宗中會計의 目的

宗中會計의 目的은 宗中の 內部規範인 規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³⁷⁾ 이처럼 內規에 明示된 宗中會計의 目的은 會計責任(accountability)의 明確化와 效率的인 宗中財産 運營과 報告이다. 그러나 오늘날 宗中財産의 規模가 大型化, 增加趨勢에 있으며, 또한 宗中財産의 運用 및 會計寶庫에 대한 利害關係者가 많아지는 등 會計環境 등도 변화함에 따라 宗中會計의 目的도 이에 符合되게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宗中會計가 주로 報告하는 總會(宗會)資料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總會에서는 過去 財務 및 投資活動에 대한 정보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未來에 行해질 賃貸收益 目的의 建物新築이나 獎學事業 등과 관련된 意思決定도 동시에 行해지므로, 宗中の 未來活動에 필요한 財務的 資源의 收支에 대한 情報要求도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宗中の 總會報告 資料에는 保有 不動産에 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最近의 資料에서는 不動産에 대한 정보(公示地價 등)자료가 종종 公示되고 있다. 이처럼 宗中會計의 目的은 過去의 단순한 會計報告의 責任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未來의 意思決定과 관련된 情報의 提供으로까지 擴大되고 있다.

4. 宗中會計의 特性

37) 예를 들어, 벽진 이씨 평정공派의 “財政出納에 관한 內規(제1조)”에서는 내규의 목적을 “財政出納의 適正과 範圍를 정하여, 出納者의 責任所在를 분명히 하고, 宗中財産의 철저한 관리와 財政出納의 效率的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 現金主義와 收支決算報告

現金主義會計(Cash Basis Accounting)는 現金의 收支를 會計實體(Entity; 企業)의 收益(現金流入)과 費用(現金流出)의 認識基準으로 삼는 會計이다. 따라서 保守的 會計處理 觀點에서, 實現收益을 認識하고, 發生費用을 認識하여 收益과 費用을 對應시켜 利益을 確定하는 發生主義會計(Accrual Basis Accounting)와는 다소 相衝되는 概念이다. 즉, 現金主義와 달리 發生主義는 現金의 流出·入과 관계없이 經濟的 事件이 發生했을 때, 즉 原因과 結果를 동시에 기록하므로 現金主義會計情報보다 意思決定에 더 正確하고 有用한 情報를 제공한다. 따라서 오늘날 現金主義會計는 營利目的의 財務會計에서는 原則적으로 適用되지 않으며, 一部の 非營利組織의 會計에서 적용되고 있다.³⁸⁾ 現金主義會計가 갖고 있는 源泉的인 問題(期間歸屬[timing]과 對應의 問題[mismatching])로 인하여, 現金主義 下에서 보고되는 財務情報는 各 收支決算書와 附屬明細書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회계정보이용자가 현금흐름정보에 만 관심이 있거나, 혹은 複雜한 發生主義會計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有效한 會計方式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宗中會計가 現金主義에 基礎하여 收支決算書를 財務報告의 主要한 財務情報로서 삼는 것은, 宗中會計의 水準과 現 實을 가늠케 하는 證據라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서, 固定資産의 記錄漏落(減價償却에 對한 會計處理가 現金主義 下에서는 認識될 수가 없음) 등이 나타나며, 아울러 자산·부채에 對한 잔액을 精確히 기록할 수가 없다. 이는 예를 들어, 先給費用이나 未支給費用 등에 對한 會計處理方法(發生主義會計의 未 導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잔액을 精確히 確定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現行 宗中會計의 公示資料는 어느 특정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은 대차대조표의 基本情報가 源泉적으로 維持될 수 없는 限界點을 갖고 있다.

나. 單式簿記의 報告

單式(single-entry)簿記는 거래를 測定함에 있어서 財務的 源泉과 運用이라는 兩側面(dual-aspect)을 記錄(記帳)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現金의 入·出金만을 記錄(記帳)하는 方式을 의미한다. 그러나 複式(double-entry)簿記에서는 交易의 재무적 원천과 운용이라는 兩 측면을 동시에 기록하므로, 去來의 原因과 結果가 동시에 파악된다. 이로 인해서, 貸借平均의 原理(Dual-Aspect Concept)가 適用되어 會計課程의 誤謬와 漏落에 對한 自動檢證기능(즉, 自家檢證機能)이 있을 뿐만 아니라, 因果關係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宗中會計는 現金主義를 채택하면서도 單式簿記의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收入과 支出이라는 去來의 一方의 側面(only one-side)만이 나타날 따름이라 그 原因을 알기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財務的 去來의 結果만 있고 相對

38) 이는 현금주의회계의 문제점, 즉 기간귀속(timing)과 수익·비용의 대응(matching)에 있어서, 발생주의회계에 비하여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내용이 현금흐름(cash flow)에만 국한되어 보고되기 때문에, 그 밖의 거래, 즉, 미래의 현금흐름과 관련한 정보 등의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科目을 통한 原因糾明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자산취득에 의한 것인지, 부채 감소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즉, 報告되는 收入과 支出이 각각 어떤 源泉에 의하여 調達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問題點을 야기하게 되며, 이는 곧 宗中會計의 問題點이라 할 수가 있다.

다. 非營利性的의 基金과 豫算會計의 適用

非營利會計인 경우에는 組織의 目的에 符合되도록 支出과 收入이 올바르게 계상되었는지? 등이 관심의 대상이다. 宗中會計는 典型的인 非營利會計로서, 宗中の 이해관계자는 會計實體의 資本과 利益情報보다는 宗中の 目的에 符合되게 支出과 收入이 適正하게 운영되었는지? 에도 관심이 있다. 이러한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基金會計나 豫算會計(budget accounting)를 編成할 때, 基金會計나 豫算會計의 處理指針을 準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宗中の 特別行事나 建築, 혹은 特定事業(예를 들면, 獎學事業)의 基金造成과 執行의 경우에는 典型的으로 基金會計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라. 宗中の 納稅義務

宗中과 관련한 納稅義務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宗中の 納稅義務 중에 法人稅는 宗中이 登記登錄을 하지 않아서 法人格이 없는 團體가 되더라도 당연히 존재한다. 특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보면, 종중의 부동산임대업은 영리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종중도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宗中會計의 제반 問題點

오늘날 宗中會計의 處理課程에서 발생하는 제반 問題點을 주요 計定科目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有形固定資產에 대한 記錄의 漏落

宗中會計에서 보고되는 財務情報는 特定時點의 財務狀態가 모두 보고되어야 하는 바, 일부자산의 경우에는 漏落되어 있다. 특히, 有形固定資產의 경우에는 宗中財産이나 收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宗中の 會計慣行은 宗會(營利法人 株主總會에 해당됨)에 보고되는 財務報告書 및 會議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宗會(定期總會)의 決算報告事項에는 單式簿記形態의 收支報告書 및 收支明細書 및 預金額 證明書寫本으로 구성되며, 不動產에 대한 面積과 公示地價를 동시에 公示하는 官行은 최근에는 宗中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會計處理 및 報告慣行은 宗中會計가 單式簿記 및 現金主義會計基準에 基礎하기 때문에 보유부동산이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과

같은 주요 유형고정자산과 그와 관련한 부채의 조달내역 등이 決算報告書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 및 보고관행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야기한다. 첫째, 종중의 보유자산, 특히 보유부동산에 대한 正確한 鑑定(減價償却未實施, 公正價値未反映)이 어려워 향후 宗中の 運營과 관련한 豫算編成의 制約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종중의 보유부동산과 관련한 부채상환계획과 감가상각처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中宗財産 内部統制의 未備

宗中財産에 대한 内部統制시스템의 未備로 인하여 종중재산에 대한 구성원간의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한 사건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i. 宗中の 監査機能과 宗會(定期總會)의 管理·監督機能이 전문적이지 않으며,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종회에서, 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회의장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박수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다. 또한, 宗中財産의 所有權에 대한 법적형태가 總有라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宗中所有의 固定資産에 대한 橫領·背任事件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ii. 종회 등에 固定資産에 대한 會計報告가 漏落되어 있고, 또한 다수 종원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매각이나 부동산에 대한 用益物權(地上權 등)設定 등의 裏面契約이 가능하고, 또한 일부 종중구성원(집행부)의 共謀에 가담할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iii. 종중이나 종회가 종종 세무관서로부터 부여받은 固有番號證(이는 종중 등 非營利法人의 事業者登錄證 역할을 한다)에 의한 종중명의의 예금을 일부 종중이 하지 않고, 會長이나 總務 個人의 名義로 預置하고 있어서 금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iv. 대부분의 종중회계는 非公開(閱覽이 制限的이며, 公示도 일회에 그치고 있음)이며, 회계담당자와 자체 감사인(監査人)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일반 영리법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정비된 회계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대부분이 小規模의 宗中인 까닭에, 宗中財産도 少額에 불과하여 향후에도 제대로 된 會計處理가 행해지지 않아 會計不正의 가능성이 기타 비영리조직회계에서보다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3. 會計基準의 未備

무엇보다도, 宗中은 타 비영리단체인 병원법인회계, 학교법인회계, 사회복지법인회계, 교회 및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 법인회계보다도 會計處理方法 및 基準(規範 등)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이중에서도 사립학교회계(즉,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대한 特例規則,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와 사회복지 법인회계(즉, 社會福祉法人 財務·會計準則)는 外部監査를 義務化하고 있으며 또한 세무조사의 압

력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會計情報의 信賴性과 透明性도 상당히 確保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하여, 종교법인 회계, 특히, 교회회계나 사찰회계 등의 경우에는 비록 회계기준 및 관리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어도, 組織特有的 閉鎖性으로 인하여 情報公開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의 세무조사나 인건비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며, 外部監査도 强制化 되지 않아 會計情報의 信賴性과 透明度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나름대로의 회계처리 지침(기준이나 준칙 등)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그러나 宗中會計의 경우는 상기의 非營利法人과는 달리 아예 별도의 會計處理指針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이의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

제 3 절 向後 宗中會計의 改善方向

1. 宗中會計의 理論的 檢討

가. 獨立된 宗中會計의 成立可能性

宗中이 갖는 特殊性(人的構成, 對外的인 非開放性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宗中會計란 用語自體가 본 研究以前에는 學術的으로 취급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宗中會計라는 것이 이러한 特殊性에도 불구하고, 과연 i. 獨自的인 회계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즉, 成立여부)? ii. 하나의 獨立的인 회계체제가 정비되었을 경우, 어떠한 실익이 있을 것인지(즉, 效益여부)? 등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만약 향후 宗中會計의 成立을 위해서는 전술한 i., ii.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最小限 現在의 非營利團體의 會計體系와 矛盾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일관된 회계이론구조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GAAP)”과는 構造 및 論理的인 整合性(整合性)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宗中會計가 이러한 GAAP의 基本目的과 假定에 最小限 符合되어야 하며, 宗中회계의 成立可能性의 與否는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宗中회계가 비록 宗中을 하나의 회계실체(Entity Concept)로 간주하여, 宗中재산과 관련한 거래만을 인식, 측정,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전술한 관점에서 시스템의 構造的·論理的 妥當性(整合性)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순서로 宗中회계의 성립 가능성여부를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첫째, 宗中회계의 목적이 과연 財務會計의 一般目的(general purpose)과 같이, 一般性을 갖추고 있는지?, 둘째, 宗中회계의 會計假定(公準; accounting postulates)이 재무회계처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셋째, 宗中회계가 全般的인 理論構造를 구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상기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宗中以外的 非營利 法人의 會計處理指針 및 準則들과 比較하여 論議해야 할 事項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檢討한다. 둘째, 宗中회계에만 歸屬되는 特有的 問題點들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여기에는 固定資産의 認識과 資本의 構成, 特殊的 計定科目의 樹立, 複式簿記의 構成 등과 관련한 문제들

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종중회계에 적합한 財務諸表의 形式이나 內部統制의 문제들에 대한 改善方案도 함께 논의된다.

나. 宗中會計의 目的檢討

논의할 종중회는 비영리조직 중의 하나인 종중(문중)에 대한 회계이다. 따라서 종중회계가 獨立的인 會計體制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영리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술한 종중회계의 목적이 非營利會計의 一般目的으로 인정되는 FASB No.4(“재무회계 개념보고서”), GASB No.1(정부회계 개념보고서),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침서” 등과 비교하여 論理的인 整合性이 認定되어야 한다.

다. 宗中會計의 諸 假定에 대한 研究

會計成立의 前提條件인 諸 假定(소위, 會計假定 혹은 會計公準이라고 함)이 충족되어야 종중회계도 獨立的인 會計體系로서 인정된다. 諸 假定 중에서도, 會計實體가 과연 실제로 存在하느냐, 혹은 存在하는 것으로 擬制하느냐? 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宗中會計의 경우는 일반적인 재무회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종중이라는 조직은 법률적으로 權利·義務의 主體가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어, 獨立된 하나의 會計實體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등기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서, 등기관리자와 訴訟當事者 能力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排他的으로 經濟的 效益을 향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중은 부채를 부담하여 미래에 다른 會計實體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계실체의 현재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을 초래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종중은 상거래의 주체(固有 番號證을 교부받음)가 되어서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損益의 歸屬主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중이 구성원과 독립된 회계실체로서 가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宗中의 繼續性은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혈연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영리조직의 경우와는 달리 非營利組織인 宗中은 비록 財務的 어려움을 겪더라도, 宗員들이 능동적으로 종중을 해산시키지 않는 한, 존속될 가능성이 많다. 경험적으로 볼 때, 종중이 종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부도를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종중재산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볼 때, 宗中의 繼續性原則은 維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종중의 재산은 법적으로 總有이므로, 개별 구성원간의 관계보다 종중전체와의 관계가 더 높은 소유형태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재산은 宗中의 內部規範(定款이나 規約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개별구성원인 구성원에게 배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영리조직의 회계에서 共通的으로 發生하는 하나의 특성이다. 따라서 종중회계의 자본은 영리법인의 구성원인 株主의 持分(殘餘 財產 分配請求權)과는 차이가 있다.

라. 宗中會計의 理論的 構造에 대한 研究

宗中會計가 向後 獨自的인 會計體系로서 認定받기 위해서는, 現행의 비영리조직의 一般會計의 理論的 構造에 符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영리회계의 원칙은 현재 상존하지 않으나, GASB(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서(基準書)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침서” 등과는 이론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³⁹⁾ 그러나 종종에서 적용하는 會計處理方式 및 基準은 상기의 GASB(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서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침서”의 내용과는 거의 相衝되고 있다. 이러한 종종회계의 實務慣行은 먼저 비영리회계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종교법인 등의 경우에도, 상기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國際的 要求水準은 무리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會計實務慣行이나 宗中會計의 會計處理水準 등을 감안할 때, 위의 기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固定資産에 대한 認識漏落과 이에 따른 減價償却의 未處理, 現金主義 會計處理 등은 現行의 一般會計와는 매우 큰 理論的 齟齬를 露呈(露呈)하고 있다. 따라서 종종회계가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비영리회계로서의 이론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問題點에 대한 解決策이 先決되어야 한다.

2. 宗中會計에서 提起되는 主要 論點

가. 固定資産의 認識 및 評價問題

宗中所有의 不動産(有形固定資産)이 現金主義會計 하에서는, 재무보고에서 누락됨에 따라 고정자산과 관련한 재무정보와 운영상황을 이해관계자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을 종종회계가 인식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측정하여 보고(측정기준의 선택문제)할 것인지? 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종종회계가 獨立的인 會計로서 鼎立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정방식이든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재무보고개념체계’라 한다)문단 149(측정 속성의 종류)에서는 資産의 一般的인 測定屬性으로서 취득원가주의, 공정가치, 기업특유가치, 상각 후 가액, 순 실현가치와 이행가액을 들고 있고, 또한 문단155(현재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현재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150에서는 회계실체가 目的適合性과 信賴性에 맞게 最善의 測定屬性을 選擇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단153에서도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에 근거하여 취득원가에 기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상기내용은 영리회계에서는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비영리회계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는 GASB에서, 비영리법인의 固定資産評價에 대하여 原價主義를 原則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이 비영리법인의 회계목적이 영리법인과는 다른 점에서 유추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침서”도 동일한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

39) 구체적인 내용은, 심재영, 『비영리회계』, 회계학 핸드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p.1491-1493. 참조.

우, 宗中會計에서는 有形資産의 測定屬性을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①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경우는 取得原價主義에 基礎하여 測定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그와 동시에 상각대상자산(가령, 재실이나 집기비품 등)은 正常的인 減價償却을 통하여 償却 後 帳簿價額으로 재무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維持·補修 活動을 통해 原狀이 存續되는 有形資産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註釋으로 公示만 하고 감가상각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③또한 종중의 사업을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의 市場價値를 反映하는 公正價値(市場價値)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나. 資本의 構成 및 定義에 대한 研究

宗中會計의 資本에 대한 認識, 測定의 문제가 複式簿記로의 이행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영리회계에서의 자본의 정의는 재무회계개념체계 104에서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 액 또는 순 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회계인 종중회계에서는, 자산에 대한 소유개념이 법률상 총유의 형태로 정의되므로, 개별구성원에게 잔여 순 자산을 환급한다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체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어렵다. 따라서 이미 자본에 대한 회계개념이 정착된 비영리조직의 학교회계, 병원회계, 공동주택회계 등의 회계규범이나 지침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學校法人 資本會計概念의 導入檢討

이상의 비영리법인의 자본회계의 개념 등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종중의 자본회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非營利組織의 資本會計는 學校法人會計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외의 다른 비영리조직의 자본회계는 이론적으로 매우 잘 정비되어 있으나, 종중회계가 바로 수용(특히, 병원회계의 경우)하기에는 전문적 지식이 많이 소요되며,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동시에 營利性이 강한 病院會計가 주축이 되어 있어, 宗中의 現金主義會計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 또한, 현금납입이 강제화 되는 공동주택회계도 직접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는 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법인회계가 참고하여 수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나, 종중회계도 장기적으로 이론적인 전문성을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침서와 같은 방향으로 자본회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複式簿記로의 轉換過程과 諸 問題點

單式簿記로 會計處理가 되는 비영리회계는 종중이외에 종교회계와 사회복지법인회계정도이며, 이 때문에 會計의 透明性과 信賴性 및 非效率性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의 전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⁴⁰⁾ 따라서 만약 종중회계가 複式簿記의 導入을 前提로 할 경우에는 회

40) 한 예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복식부기로 전환(2007년부터 도입되어 시행)하는 데에 8년이나 소요되었다.

계기준과 규범의 설정, 회계담당자의 교육, 공청회실시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 財務諸表의 構成問題

중중회계의 財務諸表의 構成은 宗中以外的 非營利組織의 財務諸表의 構成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財政狀態報告書인 ‘貸借對照表(財務狀態表)’, 損益計算書(‘運營成果表’), 및 ‘資金收支表’이다. 이에 반하여, 현행 중중회계는 재무제표로서는 ‘자금수지표’만 있다. 다른 비영리조직의 보고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중중의 보고 재무제표에도 기본적으로는 ‘貸借對照表(財務狀態表)’와 損益計算書인 ‘運營成果表’ 등은 포함되어야한다.

바. 內部統制의 樹立問題

중중회계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會計의 受託 및 報告責任이다, 이러한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組織의 內部統制制度가 確立되어야 한다. 내부통제를 수립하고 운영을 실무적 수준까지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 밖이지만, 중중회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論点의 內部統制가 整備되어야만 중중회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豫算會計制度의 導入과 會計統制시스템의 施行으로서, 중중은 연도별 예산을 계획(planning), 집행(doing), 승인(seeing)을 받음으로써, 계획대비 지출을 통제(controlling)하며, 이를 내년도 예산수립에 반영(feedback)하여야 한다. 이러한 豫算會計制度는 規約이나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強制化하기만 하면 된다. 아울러, 會計統制시스템도 함께 構築하여, i. 모든 거래나 사건을 회계기록하고, 承認된 者만이 資産에 接近하도록 허용하며, ii. 정기적으로 회계기록과 자산·부채를 실사(實事)하는 등, 日當的 內部統制가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자산·부채의 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會計規範 등의 整備로서, 현행의 중중회계규범이나 규정들은 각 중중이 대부분 임의로 제정한 것들로서 내용이 빈약하거나 이론적으로도 불완전하여, 설령 법규 등을 위반하여도 會計責任者에게 法的인 責任을 물을 根據가 희박하다. 이에 반하여, 중중외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규범이나 규정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정립되어있어서, 회계담당자의 會計處理違反을 事前에 豫防할 수 있다. 따라서 중중의 회계규범이나 규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여타 비영리법인의 회계규범 등을 참조하여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③獨立的인 外部의 會計監査의 實施를 義務化하는 것으로서, 현행의 宗中會計의 監事는 전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내부감사(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獨立的인 外部監査의 實施가 要求되며, 이를 強制(義務)化할 수 있는 規約이나 規程의 制定 혹은 改正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시스템분석 ②복식부기회계기준 설정 ③선진국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연구 및 제도반영 ④자산조사 및 재산관리기준 설정 ⑤복식부기를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 ⑥프로그램 시연 및 수정보완 ⑦복식부기제도정착을 위한 교육실시 계획 등으로 진행되었다.

3. 宗中會計基準의 向後 制定方向

전술한 主題別 問題點과 관련 檢討內容을 綜合하여, 宗中회계의 회계원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①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財政狀態報告書, 즉, 財務狀態表), 손익계산서(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및 주식으로 한다. ②자산, 부채의 평가는 원가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③자본은 複式簿記로의 轉換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주의 기준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收益과 費用의 認識은 發生主義 會計處理原則에 따른다. ⑤현금흐름표는 현금의 源泉別 흐름에 따라 주 活動(營利會計의 營業活動에 해당), 投資活動 및 財務活動으로 區分하여 표시하며, 直接法을 報告原則으로 한다. ⑥註釋公示事項으로는 주요한 會計處理方法의 概要, 固定資產 및 借入金과 相關한 主要 變動事項과 向後 計劃 등, 現行의 公示內譯을 참조하여 정한다. ⑦宗中豫算의 執行과 内部會計統制와 相關한 法規制定 등도 포함한다.

IV. 結 論

우리의 傳統會計에 關한 研究는 처음에는 開城商人을 중심으로 한 營利組織의 帳簿인 사개송도치부법과 相關한 研究가 19세기의 개항전후에서부터 시작하여 윤근호(1984)까지 이어오다가, 이후 停滯되었으나 2005년도에 박영진家의 사개송도치부 장부가 발견되면서부터 學界의 耳目을 끌면서 相關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우리고유의 전통회계의 實態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다. 그이유는, 첫째, 전통회계연구가 營利會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朝鮮時代의 근간이 되는 儒敎文化와 이에 기초한 共同體的인 慣習(즉, 契, 宗中, 寺刹, 書院 등)과 相關된 非營利조직의 회계를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연구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는 회계의 양면성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19세기의 開港前後의 자료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 이전의 전통회계에 대한 부분이 漏落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開城商人의 사개송도치부법과 같은 營利團體의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非營利團體인 우리고유의 契 및 宗中文化 등에서 自生的으로 발달되어온 會計學的 特性에 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固有의 傳統文化와 制度 속에서 傳統的인 會計가 어떻게 生成·發展되어 왔는지를 會計學的 觀點에서 考察(整理 및 要約)함으로써, 향후, 會計史的으로 뿐만 아니라 經濟社會·文化史的과 相關된 會計學 研究에도 많은 示唆點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宗中과 相關된 傳統的인 會計研究에 主眼點을 두어, 宗中財産의 會計處理와 報告시스템 등에 대해서 오늘날의 會計學的 觀點에서 再照明하며, 아울러 宗中과 相關된 會計(이하, ‘宗中會計’라고 한다)의 成立與否와 이를 위한 諸 方法 등에 대해서도 考察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非營利組織의 規模의 增大와 더불어, 全

南 영암마을의 南平文氏의 門中 契의 會計帳簿인 『용하기』 가 발견되면서 이들 중중組織과 관련한 會計處理方法 등도 일부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論議하고 있는 宗中會計가 그 한 例이다. 結論的으로, 먼저, 前述한 營利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開城商人의 置簿法인 사개송도치부법과 관련한 論爭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複式簿記의 與否이며, 둘째는 生成時期의 問題이다. 前者와 관련하여, 長期間에 걸쳐서 現存하는 박영진家의 會計帳簿를 토대로 會計年度全體의 會計循環過程에 대해서 分析한 결과, 사개송도치부법이 發生主義會計原則이 部分的으로 반영된 複式簿記임이 판명되어 사개송도치부법의 複式簿記與否에 관한 論議는 일단락되었다. 後者인 사개송도치부법의 生成한 時期는 박영진家의 會計帳簿가 시기적으로 1887년부터 存在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西洋簿記가 傳來되기 以前이고 또한, 현병주(1916)의 著述以前이기 때문에 사개송도치부법이 最小限 19세기중반以前에 우리나라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 固有한 會計用語와 帳簿形式의 起源이 高麗祖까지 올라가고, ii. 複式簿記의 原理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多樣한 獨創的인 計定科目들을 사용하고 있어 사개송도치부법이 韓國 固有의 會計라는 高麗時代起源說이 學界의 多數說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非營利組織인 門中契의 帳簿인 『용하기』에서는, 契의 設立, 運營, 會計, 監査에 관한 內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生成 時期는 最小限 18세기중반으로 朝鮮社會의 近代的 合理主義 精神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門中(宗中)을 中心으로 하여 작성된 會計帳簿인 『용하기』는 宗中會計의 成立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따라서 宗中이 中心이 된 宗中會計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宗中은 우리 固有의 祖上崇拜 慣習과 儒敎文化가 結合되어서 發生된 組織으로서, 오랫동안 비교적 적지 않은 宗中財產을 관리하는 獨立된 實體로서 이해되어왔다. 또한 오늘날 宗中財產의 規模가 커지고, 資産構成이 복잡해지는 등 會計環境도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宗中會計는 오랫동안 慣行的으로 이루어져 온 單式簿記, 現金主義會計라는 過去의 慣習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 그 결과, 宗中の 財產과 相關한 橫領, 詐欺事件이 종종 발생되며, 더 나아가 宗中會計가 宗中の 重要的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問題點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 Ⅲ장에서도 宗中會計를 獨立的인 非營利會計의 한 分野로 파악하여, 宗中會計의 問題點을 파악하고 代案을 제시하기 위하여 餘他의 非營利會計와 比較分析하였다. 그 결과, 固定資産과 資本에 대한 會計認識이 漏落되어, 이들에 財務報告도 행해지지 않으며, 또한 財務報告를 위한 獨立的인 會計基準이나 規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内部會計統制 상의 상당한 脆弱點을 露呈하고 있다. 그러나 宗中會計가 會計假定 및 會計理論構造 상의 改善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獨立的인 非營利機關의 會計領域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의 落後된 宗中會計가 오늘날 指摘되는 諸 問題들을 克復하기 위해서는 i. 獨立的인 면에서도 對內·外의 環境에 附合할 水準의 會計處理指針이 조속히 制定되어야 하며, ii. 동시에 内部會計統制에 대한 強化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가 있다. 그러나 非營利會計, 특히 宗中會計를 研究함에 있어서

指摘되어야 할 限界點은 資料의 不足과 이해관계자의 觀心不足이라는 점이다. 이는 각 宗中の 閉鎖性과 現實的 制弱 등이 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營利 및 非營利組織의 會計, 특히 宗中會計라는 새로운 概念을 學界에 제시하면서, 獨立된 非營利會計領域으로서 제반 問題點들을 解決하려는 最初의 試圖라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

參考文獻

1. 國內文獻

- 김원권, 종중에 관한 법적 고찰,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동규, 대학회계, 회계학 핸드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나주임씨 대종중 규약 2007.
- 남평문씨 대종회, 2006년 결산서.
- 남평문씨 동래파 종회, 2005년 결산서.
- 노씨 중앙종친회 2007.
- 박영규, 회계 및 조세에 대한 조선시대와 현행의 제도비교, 인하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 박승환,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 법문사 2003.
- 반남박씨 대종회종약, 감사규치, 재무규칙 2007.
- 벽진이씨 대종회, 2003년, 2006년, 2007년 결산서.
- 벽진이씨 대장군과 종회, 2007년 결산서.
- 벽진이씨 평정공파 종회, 2007년 결산서.
- 벽진이씨 외재공파 종회, 2006년, 2007년 결산서.
- 벽진이씨 부산화수회, 2007년 결산서.
- 심재영, 비영리회계, 회계핸드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안운태, 사개송도치부법 연구의전개,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집:7-76, 1978.
- 이명희, 조선후기 공동체 관리규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승충명록과 <남평문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원로, 사개송도치부법 정해, 다산북스, 2011.
- 이정호, 회계사연구, 서울대회계연구회 편집, (주)영화조세통람, 2002.
- 연안이씨 종종 종종규약 2007.
- 전성호, 세종시대 내부통제시스템, 2006
- 전성호, 조선후기 米價史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a.
- 전성호, 조선시대 호남의 회계문화, 다할미디어, 2007b.

- 전성호, 개성시변제도 연구-개성상인 회계장부 신용거래분석(1887-190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 75집, 2011.
- 정기숙·전성호·이명희, 조선시대의 회계실태 및 윤리규범연구(1668-1900),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2004.
- 정귀호, 종중법에 관하여, 광운직교수 회계기념 민법학논집, 박영사, 1985.
- 정현석, 재미있는 회계여행, 김영사, 2006.
- 조익순, 사개송도치부법 전사-우리나라 고유부기의 발자취, 해남, 1999.
- 조익순·정석우, 복식부기로서의 사개송도치부법 성립시기에 관한 탐색,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12월), 2007.
- 주현석, 종중재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함양박씨 대종회 규약 2007.
- 허규, 노종상, 이태훈, 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 사법논집 제4편, 법원행정처, 1973.
- 허성관, 한국전통회계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제23권(1), 2014.
- 허성관, 박영진가의 19세기 사개송도치부 장부 회계순환구조,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 허성호·전성호, 전통회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연구를 위한 서설-21세기 국가경영시스템과 전통회계연구의 의의. 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 학술대회자료집,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7.
- 허흥식·전성호 외, 고려시대 사원의 경제운영과 회계, 한국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 II, 민속원, 2011.
- 홍정화·장영란, 회계사사 및 제도사, 두남, 2014.
- 현병주, 실용자수 사개송도치부법 전, 덕흥서림, 1916.

2. 國外文獻

- 善生永助, 朝鮮人の 商業,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11集, 1924.
- 田村流水, 高麗時代に 複式簿記あり, 東京經濟雜誌 第76卷 第1911號, 1917.
- 須藤文吉, 高麗之誇-世界最古開城簿記, 學友會報(神戸高等商業學校 學友會), 1917.
- 大森研造, 開城簿記の 起源について, 經濟論叢 第14卷 第1號, 1922.
- 大森研造, 開城簿記法の 形式と内容, 會計 第13卷 第1號, 1923.
- Goody, Jack, The East in the We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Hirai, Yasutaro, Originale "Vierfache" Buchhaltung in Kaijo, Chosen(Korea) oder Chike-Songdo-Chibu. Ein Beitrag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Buchungswesens sowie des Dualistischen Gedankens der Buchhaltungstheorie, Zeitschrift Fur Betriebswirtschaft. Jg. III Heft 6, 7, 8, Berlin.

Littleton. A. C., Accounting Evolution to 1990, New York, Reprinted by Russell and Russell in 1966, 1933.

Pacioli, F. Lucas,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c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the Treatise de computis et Scripturis, Venice, 1494.

Woolf, Arthur H., A Short History of Accountants and Accountancy, Gee. London, 1912.